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 (초등)



발간사

팬데믹 시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등교 중지와 원격수업 전환이라는, 평소 같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급작스러운 교수학습 방식 변화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학교 현장에서 이런 세계적 상황을 수업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이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일과 삶의 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근본적 목적과 가치를 묻게 되고 학교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더 느끼며,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태교육원은 다년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수학습 가이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와 연구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한 주제가 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수업모듈 12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이 단순히 보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권, 경제 불평등, 각종 차별,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환경과 생태계, 글로벌 거버넌스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참여중심 수업을 통해 타인의 상황에 공감해보며, 편협한 자국이기주의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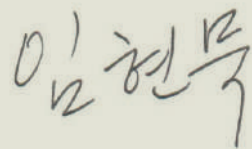
이 가이드가 다른 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변혁적 교수학습법(transformative pedagogy)을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가이드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수업에서 직접 실천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가 팬데믹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많은 선생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에 적용하면서 느낀 점이나 다른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아태교육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가이드 개정판이나 저희가 발간하는 다른 교육자료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학사일정 중에도 취지에 공감하고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집필과 연구에 매진해 주신 김화선, 박재준, 양철진, 최윤경, 최인선, 하승천 선생님과 감수를 위해 애써주신 김경숙, 이경원 교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임 현 목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normal)’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 세계시민성을 증진하는 것은 이들 도전에 대응하는 유네스코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실천)적 능력에 중점을 둔 세계시민교육은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타인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불의에 맞서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¹⁾

-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 담론의 변화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은 주로 국가 발전의 수단 및 개인의 잠재력 실현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9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선언,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교육 2030’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제사회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노력에서 이제는 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합한(relevant)’ 내용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²⁾

세계시민교육의 목적, 핵심개념 및 주제영역

세계시민교육은 지역, 국가 및 전 지구적 과제들을 사회·경제·문화·정치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 국가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지만, 유네스코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개념 영역을 강조합니다.

1) 아태교육원, 아태교육원 20년사 - 세계 시민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배우다, 2020

2)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2018

- ①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 ②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 ③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에서 소개하는 학습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틀로서, 아래와 같은 9개의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①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②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③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과 권력의 역학관계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④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⑤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⑥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 ⑦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⑧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⑨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수학습원리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법은 가치와 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발전, 인권, 문화다양성, 포용성, 사회·경제적 정의, 성평등, 지속가능성과 같은 삶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류의 안녕을 존중하는 태도함양을 지향합니다. 이는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분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문제만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는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자들이 비판적 관점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식 전수가 아닌 ‘대화’와 ‘탐구’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며, 소통과 협업 능력 배양을 위해 협동적 학습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참여적 학습이 강조됩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층적·다면적인 교육현장의 우수사례와 시행착오를 참고하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하는 교수학습법이 요구됩니다.³⁾

변혁적 교수학습법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이러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변혁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⁴⁾

-스위힌 토(Swee-Hin Toh) 알버타대학 명예교수

세계시민교육의 차별적 특징인 변혁적 교수학습법(transformative pedagogy)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능동적으로 생각하며, 학습과정에 기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이 머리를 넘어 마음과 손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념화 될 수 있습니다. 변혁적 교수학습법은 팬데믹 현상과 같은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학습을 장려하고,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 세계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 아태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한국어 해제본), 2015

4)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 2018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환경과 학습과정의 한 부분인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교실 안팎에서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⁵⁾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또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원의 습관적 행동을 재교육하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며, 질문에 기반을 둔 참여적·창조적·경험적 공동체 활동과 민주적 학습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⁶⁾

유네스코가 세계시민교육에서 권장하는 다양한 변혁적 교수법의 예시로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이벤트 기반학습(Event-based Learning),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예술/미술 기반 인지 학습(Art-based Learning),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프로젝트 기반습학습(Project-based Learning),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이 있습니다. ICT 자체로는 학습법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현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가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점점 더 광범위한 ICT 교육이 요구됩니다.⁷⁾

본 교사용 가이드는 다양한 변혁적 교수학습법을 소개하며, 현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활동을 제시합니다. 초등과 중등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수업활동을 위한 교사용 팁과 학습자료도 포함합니다. 동 자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인류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배양하여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인 주체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 아태교육원, Reconciliation, Peac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9

6) 아태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7) 유네스코, 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template, 2018
유네스코, Teaching and learning transformative engagemen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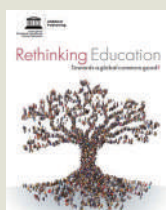
참고자료



아태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62&page=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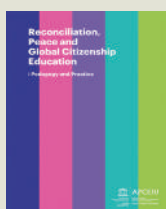
아태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한국어 해제본), 2015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71&page=5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2018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89&page=2



유네스코, 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template, 201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452>



아태교육원, Reconciliation, Peac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9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m412&wr_id=93



유네스코, Teaching and learning transformative engagement, 2019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m412&wr_id=92&page=2

활용법

Q1. 본 교사용 가이드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의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하지만 특정 학년의 교과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교사의 판단 및 학습 수준에 따라 급별에 상관없이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각 활동별 소요시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본 교사용 가이드는 교사가 그 구성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열어두었습니다. 각 활동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몇몇 단계를 제외하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연과정을 통해 제시된 예상 소요시간은 각 수업 모듈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3. 본 교사용 가이드에서 강조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에 구성된 수업활동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teaching)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facilitating)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혁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변혁적인 교수법을 필요로 합니다.
 - 학습자가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학습자가 주류 담론의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 희망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외부에 있거나 좀 더 넓은 사회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Q4. 본 교사용 가이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 본 교사용 가이드는 학습자가 팬데믹과 관련된 전 지구적인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소통, 협력, 창의 및 실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권과 사회정의, 다양성, 평등,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목 차

발간사.....	2
들어가며.....	4
활용법.....	9

01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난회복력과 시민의 연대	13
	김화선 (전남 한아름초등학교 교사)	
02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포데믹과 혐오 현상	29
	김화선 (전남 한아름초등학교 교사)	
03	문학작품에 나타난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민성과 연대	47
	박재준 (서울 공연초등학교 교사)	
04	팬데믹 상황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력	69
	박재준 (서울 공연초등학교 교사)	
05	팬데믹 상황에서의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사고의 전환	87
	가능성 탐구	
	하승천 (인천 논현초등학교 교사)	
06	영구동토층 파괴에 따른 팬데믹 가능성 탐구 및 글로벌 연대	111
	하승천 (인천 논현초등학교 교사)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1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난 회복력과 시민의 연대

김화선

01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난 회복력과 시민의 연대

학습목표

- 다양한 종류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팬데믹 상황을 포함해 재난을 마주한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다.
- 시민성의 회복과 연대의 중요성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키워드

- 연대, 시민성, 팬데믹, 재난 대처능력 (재난 회복력)

핵심역량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감정이입, 공감 능력,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와 같은 정서적 기능
-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국어, 미술, 사회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재난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발생한 전 세계의 재난 살펴보기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와 재난을 보고, 원인을 추측	15분
전개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상황에서 위기 대처하기 (상황극) 	재난 상황극을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대처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고민	25분
	팬데믹과 재난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알아보기·코로나 19를 이겨내는 방법 	코로나19의 특징과 감염 예방 방법 탐구	20분
정리	재난회복을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 회복력 캠페인 포스터 제작하기 전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 모색하기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된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연대의 필요성 이해, 연대에 참여	120분 (포스터 80분)

교수학습법

교육연극은 ‘공연예술’로서의 연극(theatre)이라기 보다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드라마(drama)의 개념으로, 참여자의 표현력과 상상력, 개성과 창의성,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교육에 역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리더(교사)는 참여자(학생)에게 생동감 있고 극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학생들은 실제적인 체험과 대화를 통해 상상하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재난’상황을 제시하여, 재난 문제를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해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마다의 해결책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DBI Network, “Drama-Based Pedagogy”, <https://dbp.theatredance.utexas.edu/about>
- Lee 외, “The Effect of Drama-Based Pedagogy on PreK-16 Outcomes: A Meta-Analysis of Research From 1985 to 2012”,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2361775_The_Effect_of_Drama-Based_Pedagogy_on_PreK-16_Outcomes_A_Meta-Analysis_of_Research_From_1985_to_2012

재난의 발생

활동목적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와 재난을 살펴보고, 발생 원인을 추측해봅니다.

활동방법

다양한 형태의 재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살펴보고, 재난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나눠 봅니다.

〈수업 영상〉



[출처] Curly Tales, "11 Natural Disasters of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XNPiaPy_vZM

- 영상에는 어떤 종류의 재난이 등장 했나요?
예) 홍수, 태풍, 지구온난화, 지진, 산불, 코로나19 등의 재난이 있었어요.
- 최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 재난들도 있었나요?
예)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같은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 재난이 휩쓸고 간 곳의 사람들(자연)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재난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동물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재난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다양한 측면에서 재난을 예방,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교사를 위한 팁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난을 맞닥뜨린 사람(동물)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 영상을 제시해주어도 좋습니다.

활동목적

재난 상황극을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봅니다.

활동방법

전 세계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앓고 있지만, 앞서 본 영상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재난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재난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여 연극으로 나타내 봅시다.

<활동 안내>

- ① 모둠별로 가족이라는 가상 역할 설정
- ②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음
- ③ 제시된 각 상황 가운데 가족을 살릴 방법을 모둠별로 토의(2~3분 이내)
- ④ 마지막 상황 제시 후,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 실연
- ⑤ 상황극을 하며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나누기

<재난 상황>

상황1	잠을 자려고 눕는데, 방바닥이 요란하게 진동하더니 안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옷장이 엄마 위로 넘어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119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화가 안 걸린다. * 실제 재난 시에는 통신망의 마비로 연락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상황2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되어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지진으로 모든 대원이 출동해 당장은 도와주러 갈 수 없으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재난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
상황3	구급대가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구급 대원에게 전화가 와서 급히 받아보니 길이 너무 막혀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응급 차량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도 있고, 양보하고 싶어도 도로가 너무 좁아 차선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재난 초기에는 교통량이 폭증하거나 재난 당국에 의해서 도로가 차단 봉쇄될 수 있다.
상황4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직접 다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한다. 엄마를 안전하게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집 밖은 많은 차들로 이미 주차장이 되어서 우리 또한 움직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몇 해 전,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이 교통과 통신에 문제가 있었죠.

- 상황 1~4를 거치며,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예) 다친 엄마가 걱정되어 무서웠고, 구급 대원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예) 도로에서 양보해주지 않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분통이 터졌습니다.
- 재난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예) '도로 확장' '긴급차량 진로 방해 금지법'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만약을 대비해서 집에 '들 것'이나 응급 상자를 구비하면 좋겠다.
 예) 심폐소생술, 붕대 감기 방법 같은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야겠다.
 예) 구급차나 긴급구조 차량이 지나갈 때, 옆으로 잘 비켜줘야 할 것 같다.
-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누가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①	②	③
공조	국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
	국가	'도로 확장' '긴급차량 진로 방해 금지법'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자조	나	만약을 대비해서 집에 '들 것'이나 응급 상자를 구비하면 좋겠다.
	나	심폐소생술, 붕대 감기 방법 같은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야겠다.
협조	서로	구급차나 긴급구조 차량이 지나갈 때, 옆으로 잘 비켜줘야 할 것 같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국가의 대책(공조, 公助, public aid)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인 자기대책(자조, 自助, self-help),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상호대책(협조, 協助, cooperation)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 '나', '서로'가 함께 협력해야 같은 재난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또 다른 재난이 오더라도 잘 대처해서 원래의 생활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재난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재난안전사업 중장기 전략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sessionId=ED07D773C77F643DCF71857E5EDFAFFF.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741000-201900072

〈실제 수업 사례〉

실제로 가족이 다쳤을 때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이 어려운 경우, 이웃의 도움을 빌려야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는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매트나 카펫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해야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교사를 위한 팁

- 본 활동은 누구에게나 재난이 닥칠 수 있음을 알고, 민감하게 그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상황극을 실연하는 과정에서는 꼭 실제처럼 체험해보도록 합니다. 환자를 들어 올린다든지, 응급 처치하는 상황에서도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황극: 파워포인트로 상황을 제시해주고, 상황의 긴박함을 연출하기 위해 효과음(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등)을 활용하면 더욱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학생들의 답변을 토대로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주제인 '국가', '나', '서로'를 끌어내도록 합니다.
- '서로'(협조)는 타인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의미를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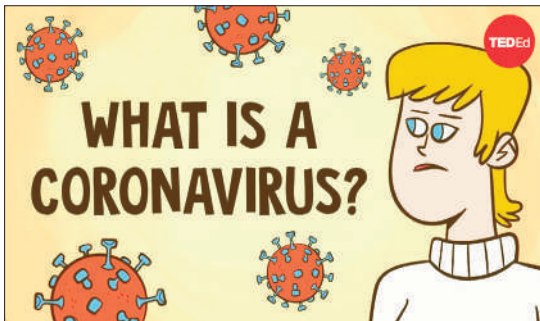
활동목적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봅니다.

활동방법

-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재난회복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 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예)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예) 해외여행을 가는 게 어려워졌어요.
 예) 식당이나 카페 같은 밀집된 곳에서의 실내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예)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요.
- 재난 극복은 재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알아봅시다.

<수업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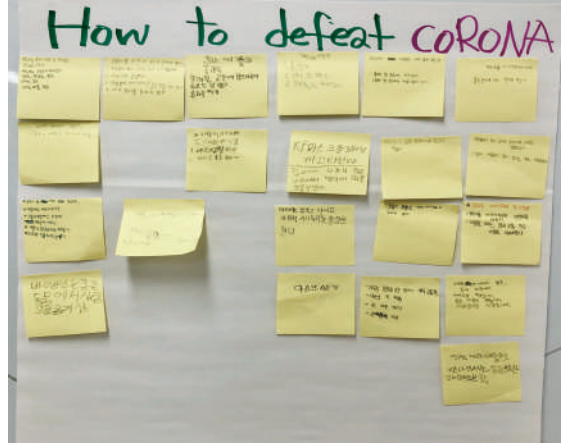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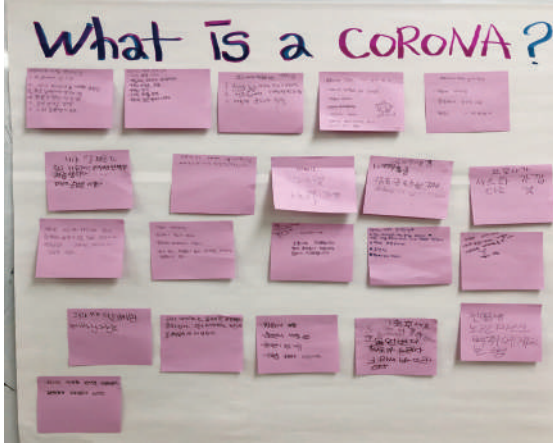


[출처] TED Ed, "What is a coronavirus? - Elizabeth Cox", <https://youtu.be/D9tTi-CDjDU>



[출처] TVN 인사이트, "전문가가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원리! | 미래수업 Living the New Normal EP.1", <https://youtu.be/OOdx6K3oUqE>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상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대처 방법)'을 더 조사하여 정리하여 봅시다.



교사를 위한 팁

- 수업 영상: 'What is a coronavirus?' 영상은 애니메이션 형태라 흥미롭지만, 영어와 한글 자막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영상 중 효과적인 영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포스트잇 활동: 수업 영상을 보며 작성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 패들렛 (<https://padlet.com/dashboard>)을 사용하여 정리합니다.

활동목적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며, 연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합니다.

활동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왜 연대해야 할까요?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국민만 안전하면 괜찮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함께 연대해야 할까요?

<수업영상>



[출처] ONE, "Stand Together - African Anthem of Solidarity against COVID-19",
<https://youtu.be/E7F4pcvNBZk>

이 영상은 ONE이라는 단체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가수들이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ONE'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 문제를 막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이들은 왜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예) 노래 가사 'Nobody is safe until everybody is safe.'처럼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가사를 생각하며 STAND TOGETHER를 함께 불러봅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나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2.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수업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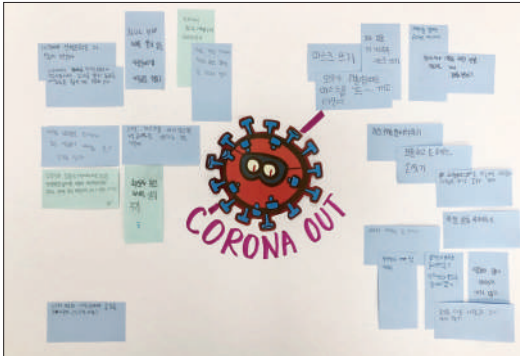
[출처] JTBC News, “[오픈마이크]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사람들”, https://youtu.be/6cJ0euL6O_g

- 영상에 등장하는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어 통역사들입니다.
-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수어 통역이나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정보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청각장애인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은 없나요? 모두가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잠재적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대처뿐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와 같은 관계상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나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생기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모둠별로 마인드 맵을 만들어 ‘국가’, ‘나’, ‘서로’의 측면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답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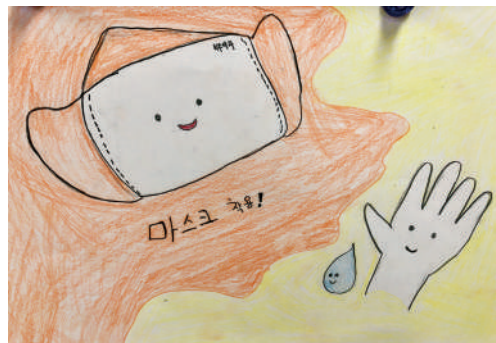
- 국가
 - 선별진료소를 더 많이 만든다.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물품을 지급한다.
- 나
 -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한다.
 - 코와 입을 잘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 서로
 -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

‘국가’, ‘나’, ‘서로’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3. 소셜 캠페인 포스터 (Social Campaign Poster) 제작하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난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봅시다.

● <예시>



<심화 활동>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각지에서 서로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해봅시다.
(해당 키워드로 기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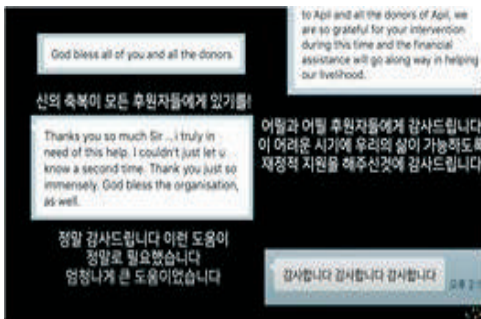
한국 (대구)

의료인들의 대구 의료봉사활동

대구시민들의 봉사진을 위한 주먹밥 후원

대구지역 시장 상인들의 도시락 후원

[출처] 인사이트, “대구 칠성야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 의료진들에게 보낸 도시락”, <https://www.insight.co.kr>



한국

공익법단체 ‘어필(APIL)’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급받을 길이 없어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된 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모금하는 후원 활동 진행

[출처] 공익법센터 어필APIL, “코로나19로 곤경에 빠진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https://youtu.be/TozjBYxTQSw>



이탈리아

도시가 봉쇄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발코니로 나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와 연주를 함께 함

[출처] Global News, “Coronavirus outbreak: Italian residents join together to sing from balconies during lockdown”, https://youtu.be/x_rLw6GSCSmE



이탈리아 (나폴리)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공급이 불가능해진 노숙자(homeless)와 취약계층을 위해 발코니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 도움의 손길을 전함, 지역 마트에서도 식료품 기부활동 진행

[출처] Euronews, “Baskets of solidarity in Naples amid the coronavirus crisis”, <https://youtu.be/bUIY50EvcMc>



인도

귀향 탈출 현상

다친 아버지를 자전거에 태우고 1200km를 달린 소녀에게 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들

[출처] BBC News, "India coronavirus: The girl who cycled to save her father", <https://www.bbc.com>



인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
원봉사자들이 음식 제공

[출처] News18, "From Community Kitchen to PPE: How Indians Showed Solidarity with Covid-19 Affected", <https://www.news18.com>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농업개발협회에서는 Agricultural Development Association (PARC) "우리는 당신과 함께입니다."("We are with you")라는 메시지를 걸고, 식량 공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채와 과일, 밀가루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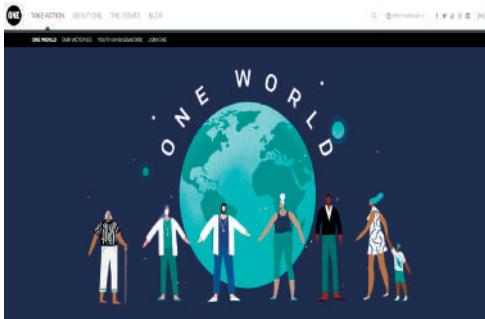
[출처] Social Promotion Foundation, "Solidarity wins in uncertain times in Palestine", <https://promociosocial.org>



브라질

브라질의 카톨릭 단체 Caritas Brazil은 위기에 즉각 대응하여 취
약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위생 물품을 제공

[출처] Caritas, "Caritas distributes aid In Brazil as needs keep increasing", <https://www.caritas.org>



국제 구호단체: ONE

극심한 빈곤을 종식 시키기 위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호단체 ONE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를 제작하고, 각지의 연대 사례를 공유

[출처] ONE, <https://www.one.org>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NGO)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별, 불평등, 기후 위기, 환경파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운동을 진행

[출처]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OVID-19 crisis is a wake up call for system change", <https://www.foei.org>

교사를 위한 팁

- 팬데믹 극복 방법 마인드맵: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며, 옆 사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지 않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추가하여 적을 수는 있습니다. (예: 손 씻기-30초 이상 손 구석구석 잘 씻기) 발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앞선 모둠이 말한 내용은 중복하여 발표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친구의 의견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 소셜 캠페인 포스터 제작하기: 표현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메시지 카드, 콜라주,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형태로 제작합니다.
- 우리는 왜 연대해야 할까요? 수업 영상: 영어 가사이지만 번역해서 학생들과 공부해도 좋을 만한 메시지들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후렴 부분은 학생들과 입에 붙을 때까지 불러보기도 하고, 한국어로 번역해 가사를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 심화 활동: '서로' 돕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형태의 협조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본 뒤 수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더 알아보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 안희경 외,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미디어, 2020)
- 김동훈, 코로나 이후의 전환 (교육공동체벗, 2020)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2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포데믹과 혐오 현상

김화선

02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포데믹과 혐오 현상

학습목표

- 팬데믹 상황에 만연한 인포데믹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다.
- 책임 있는 자세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

키워드

- 인포데믹(Infodemic), 미디어 리터러시, 혐오, 차별, 팬데믹, 가짜뉴스

핵심역량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감정이입, 공감 능력,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와 같은 정서적 기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국어, 사회, 도덕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감기 걸린 물고기' 이야기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 예상하기 • 거짓 소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거짓 소문으로 인한 의심과 분열의 과정을 흥미롭고 쉬운 그림책으로 관찰	40분
전개	감기 걸린 물고기를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 걸린 물고기 보드게임 	게임을 통해 소문의 생산자, 피해자, 소비자의 역할 체험	40분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살펴보기 • 인포데믹 이해하기 • 혐오 현상 이해하기 	팬데믹 상황 속 가짜뉴스 사례(인포데믹)와 이로 인한 문제 탐구	40분
정리	다시 쓰는 감기 걸린 물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문에 대한 반응을 역할 놀이로 나타내기 	학습을 통해 변화된 관점으로 소문을 바라보는 자세 표현	20분

교수학습법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를 얻는 과정이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스토리를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려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줄거리, 경험, 생각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속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분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접근하여, 학생들이 이를 본인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인 몰입과 공감 또한 이끌어내지요.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 만연한 인포데믹과 혐오 현상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이야기 책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보았을 ‘감기’와 ‘소문’, ‘의심’이라는 소재들을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와 혐오 현상의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McKegney, K., “Storytelling as Pedagogy: A Creative Approach to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 (Project Innovation, 1998), <https://www.questia.com/magazine/1G1-445876006/storytelling-as-pedagogy-a-creative-approach-to-curriculum>
- Abrahamson, C. E., “Storytelling as a Pedagogical Tool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 (Project Innovation, 1998), <https://www.questia.com/library/journal/1G1-20494609/storytelling-as-a-pedagogical-tool-in-higher-education>
- McDowell, K., “Storytelling: Practice and process as non-textual pedagogy”, Education for Information (University of Illinois, 2018), <https://content.iospress.com/articles/education-for-information/efi189003>

활동목적

거짓 소문으로 인한 의심과 분열의 과정을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를 통해 관찰해봅니다.

활동방법

‘감기 걸린 물고기’를 함께 읽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1. 읽기 전 활동: 표지 살펴보기

〈수업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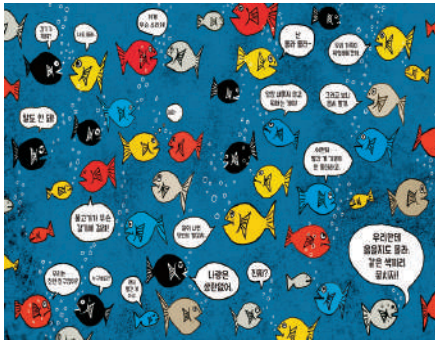
- 그림책 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바닷속에 감기 걸린 물고기가 나타나 모두가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가운데 까맣고 큰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을 것 같아요.
예) 회색, 검은색 물고기들이 감기에 걸리는 중인 것 같아요.
- 감기에 걸린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예) 열이 날 것 같아요.
예) 기운이 없어 시름시름 앓을 것 같아요.

[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

2. 함께 읽기: 물고기의 마음 예상해보기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은 물고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고기의 마음을 짐작해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수업자료 2>



- 물고기들의 표정 살펴보기
- 물고기의 마음을 예상하여 말풍선 채워보기 (*수업 진행 시 말풍선은 빈칸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채우도록 합니다.)
-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 나눠보기
- 비슷한 대답끼리 분류하기
- 실제 이야기 속 말풍선과 비교하며, 다음 장면 예상하기

[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

3. 읽은 후 활동: '소문'에 대하여

- 감기 걸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나요?
예)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 누가 물고기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렸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귀요. 작은 물고기들이 떼 지어 다녀 사냥이 어려워지자, 물고기들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 소문을 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왜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나요?
예) 빨간 물고기: 열, 노란 물고기: 콧물, 파란 물고기: 으슬으슬 파랗게 질린 얼굴을 이유로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 물고기들은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의심하기도 하고, 안 믿는 물고기도 있었지만, 무리에서 내쫓는 결정을 했어요.
-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감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인 것 같아요.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예) 차례로 아귀의 먹이가 되었고 결국 모두 잡아 먹고 말았어요.
- 만약 물고기들이 여러분이 예상했던 다른 말풍선처럼 반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교사를 위한 팁

- 작품을 교사가 그림 제시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 미리 영상으로 녹화하여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 물고기 마음 예상하기: 읽기 중, 구성된 활동으로 책의 1/4지점에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예상하기를 통해 이어질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물고기 마음 예상하기: TV로 이미지를 제시하고 화면 위에 말풍선을 붙여볼 수도 있고, 크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패들렛 (<https://padlet.com/dashboard>)에 자유롭게 작성하고 발표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답변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소문에 대하여: 내용 확인과 관련된 질문들은 학습지에 각자 적어보고, ‘거짓 소문이 도는 이유’, ‘소문에 반응하는 모습과 결과’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들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 소문에 대하여: 2번에서 했던 말풍선 반응 중, 이야기의 전개와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이야기해봅니다.
- 소문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소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기존)인식의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수업 마지막 단계에서 비교 자료로 활용합니다.

감기 걸린 물고기를 찾아라!

활동목적

게임을 통해 소문의 생산자, 소문의 피해자, 소문의 소비자 역할을 체험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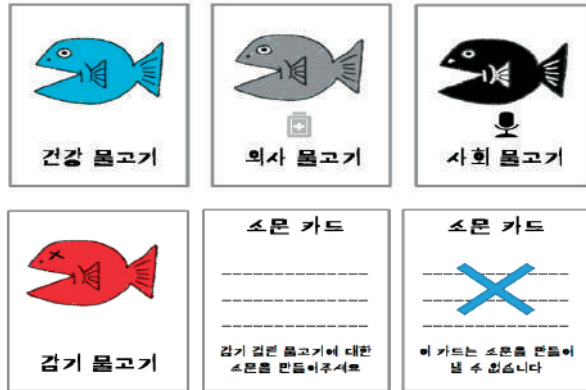
활동방법

아귀의 소문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기 걸린 물고기 게임’을 하며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 보드게임 ‘감기 걸린 물고기를 찾아라’

‘마피아 게임’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로 타인을 감기 물고기로 몰아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소문의 생산자, 피해자, 소비자를 체험하게 합니다.

- 인원: 6~8명
- 역할: 사회 물고기 1, 의사 물고기 1, 감기 물고기 2, 건강 물고기 3
- 준비물: 역할카드, 소문카드



〈활동 안내〉

- ① 각 플레이어는 역할카드 1장, 소문카드 1장을 뽑습니다. (진짜 사용 가능한 소문카드는 2장)
- ② 어둠이 찾아온 바다. 모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회 물고기만 감기 물고기를 확인 후, 특징이 드러나게 3개의 '소문카드'를 적습니다. (2장: 진짜 정보, 1장: 가짜 정보)
- ③ Round 1: 모두 눈을 뜨고, 사회 물고기가 쓴 소문카드 중 하나를 골라 소리 내어 읽은 뒤 감기 물고기를 추측합니다.
- ④ 소문과 함께 서로의 대화나 반응을 살펴보고, 감기 물고기로 예상되는 한 마리를 지목합니다.
- ⑤ 지목 당한 물고기가 최후의 변론을 한 뒤, 의사 물고기는 백신으로 물고기를 치료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치료: 생존, 미치료: 아웃)
- ⑥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사회 물고기는 아웃된 물고기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 ⑦ 밤이 되면 사용 가능한 '소문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고, 감기 물고기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진짜/가짜 정보 모두 가능)
- ⑧ Round 2: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반복합니다. (아침이 될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는 다음 라운드를 위한 소문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용 가능한 소문카드는 2장 포함)
- ⑨ 감기 물고기가 모두 아웃 되거나, 건강 물고기가 모두 아웃 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2. 게임 후 소감 나누기

관점	생각해 볼 질문
소문의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하는 동안 혹시 가짜 소문을 만들어 낸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내가 만들어 낸 소문(진짜/가짜)의 결과는 어땠나요?
소문의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심정이 어땠는지 말해 볼까요?

소문의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하면서 가짜 소문과 진짜 소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나요? • 실제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면,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	--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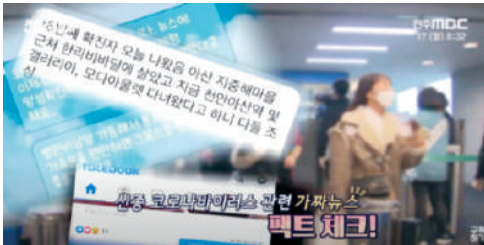
팬데믹 상황에서 넘쳐나는 가짜 뉴스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를 탐구합니다.

활동방법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요즘,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팬데믹만큼 심각한 인포데믹 현상에 대해 알아보시다.

1. 넘쳐나는 가짜뉴스, 코로나19의 진실은?

〈수업 영상〉



[출처] 전주 MBC Original, “넘쳐나는 가짜뉴스! 코로나의 진실은?”, <https://youtu.be/xZQxqyESO90>



• 여러분도 영상에 나왔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해 혹시 이와 비슷한 소문을 알고 있다면 말해 봅시다.

예) 입과 코를 소금물로 헹구면 소독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 동물 구충제를 먹으면 코로나19가 낫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 이런 소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믿을만한 정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믿을 만한 출처와 함께 보도됐는지 살펴봐요.
-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짜 뉴스들과 거짓 정보가 있었는지 조사해봅시다.
-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고, 학습지 혹은 패들렛에 확인한 내용과 생각을 정리·공유해 봅시다.

〈생각해 볼 질문〉

소문	• 어떤 거짓 정보가 있었나요?
소문의 생산자	• 거짓 정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 왜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었을까요? • 거짓 정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면, 이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소문의 피해자	•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소문의 소비자	•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거짓 정보를 믿고, 또 퍼트리려는 걸까요?
소문의 결과	• 이런 거짓 정보는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인포데믹(정보전염병)'이라고 해요. Information(정보)의 info-와 epidemic(전염병)의 -demic의 합성어죠.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은 이런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앞서 말한 대로 이름있는 뉴스나 신문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다 믿어도 될까요?
예)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보더라도 여러 차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 공식적인 정부 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 정확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부나 언론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만들거나 퍼트리지 않습니다.

2. 인포데믹의 또 다른 그림자, 혐오 현상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소문과 정보들! 인포데믹은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업 영상〉

The New York Times, “How Coronavirus Racism Infected My High School | NYT Opinion”

[영상 내용]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도시가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기 시작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퍼진 것이 아니라, '혐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이죠.

영상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등장해요. 팬데믹 이후,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 학교에 가고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아시아인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붓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은 다양한 소문과 함께 퍼지며,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의 문제로 이어졌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How Coronavirus Racism Infected My High School | NYT Opinion”, <https://youtu.be/f5ccbJcqlUo>

- 어떤 내용에 관한 영상이었나요?
예) 코로나19가 중국(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현상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을까요?
예)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탓인 것 같습니다.
-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인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 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했던 적은 없었나요? 미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 세계시민으로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혐오와 차별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사를 위한 팁

- 인포데믹의 그림자, 혐오 현상: 다양한 종류의 혐오 피해 사례 중 학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도록, 또래 학생들의 사연을 제시합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계 미국인 (Chinese-American) 학생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행동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보게 합니다.
- ‘혐오와 차별 대신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내가 바로 세계시민’ 이라는 내용을 학생들이 인식하게끔 지도해 주세요.

더 알아보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사례

- KBS News, “[ET] 코로나 방역 가로막는 ‘가짜뉴스’…누가, 왜?”, https://youtu.be/M_gEoeJ2UMk
- KBS News,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인포데믹’…정보 방역이 변수”, <https://youtu.be/e1nQB-Tapkc>
- YTN, “[기자브리핑] 넘치는 코로나19 가짜뉴스…공포감 조장하는 언론”, https://youtu.be/bU2M9BsE_Oo

코로나19에 관한 팩트 체크

- tvN 인사이트, “최고 권위 분자생물학자의 코로나 팩트체크! | 미래수업 Living the New Normal EP.1”, <https://youtu.be/7IsOxPJsF-w>
- tvN 인사이트, “[FULL VER.] 암세포 & 인간게놈 최고 권위 과학자들의 코로나19 FACT 총정리”, https://youtu.be/dJvtr_lxQG4
- JTBC News, “[팩트체크] 공기전파? 무증상전파? 코로나19,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https://youtu.be/NJeIMCw1998>

인포데믹의 문제점과 혐오 현상


- tvN 인사이트, “감염병만큼 무서운 정보전염병(Infodemic)! 공포를 ‘파는’ 사람들 | 책 읽어드립니다 The Page-Turners EP.23”, <https://youtu.be/tPHYquo2R6k>
- 시사직격, “[인터뷰] 코로나19 가짜뉴스가 남긴 것 | 시사직격 21회”, <https://youtu.be/f-cPL-rYoBY>
- 울산매일 U TV, “코로나 가짜뉴스에 피해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 “진짜 억울합니다!!!” <https://youtu.be/JvHhnFOxOXo>
- BBC London, “Coronavirus Hate Crime - BBC London”, <https://youtu.be/2Z1pOEjajaY>

활동목적

학습을 통해 변화된 관점으로 '감기 걸린 물고기'를 다시 읽으며, 소문을 바라보는 자세를 표현해봅니다.

활동방법

감기 걸린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 여러분이 다시 소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둠별로 상황을 골라 역할 놀이로 표현해봅시다.

<p>① “애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p> <p>“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p>▶ 여러분의 반응은?</p>
<p>② “애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p> <p>“감기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이 친구들 큰일나겠군!”</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p>▶ 여러분의 반응은?</p>
<p>③ “애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p> <p>“애들아~ 파란물고기도 감기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 좀 봐~”</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p>▶ 여러분의 반응은?</p>

- 첫 번째 활동에서 붙였던 말풍선과 수업을 마친 뒤 소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비교해봅시다. 그대로인가요? 바뀐 부분이 있나요?
- 여러분의 반응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 팬데믹과 더불어 인포데믹이 무섭게 퍼지는 요즘, 세계시민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보기 위한 나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교사를 위한 팁

첫 번째 활동의 말풍선 채우기에서 보였던 생각들이 수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찰하기 위해 구상된 활동입니다. 인지적·정서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을 연극을 통해 행동적으로 실천해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 안희경 외,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미디어, 2020)
- 홍성수, 말이 같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K-방역 관련 자료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국가전략위원회 코로나19 사회연구팀, 코로나19 Talk] 불안과 분노, 코로나블루, 재난심리와 사회적 위험인식 -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ttps://youtu.be/FluyEPiIRTA>

활동지 1.

'감기 걸린 물고기' 이야기 속으로

감기 걸린 물고기



- 그림책 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 감기에 걸린 물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어디서 온 소문?

- 누가 물고기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렸나요? 왜 그랬을까요?

감기 걸린 물고기?

- 감기 걸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나요?

- 소문을 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왜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나요?

감기 물고기1	감기 물고기2	감기 물고기3
증상:	증상:	증상:

- 물고기들은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활동지 2.

감기 걸린 물고기를 찾아라! (잘라서 사용하세요)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의사 물고기	 사회 물고기
---	---	---	---	--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건강 물고기
---	---	---	---	--

 감기 물고기	 감기 물고기	 감기 물고기	 감기 물고기	 감기 물고기
---	---	---	---	--

<p>소문 카드</p> <p>-----</p> <p>-----</p> <p>-----</p> <p>감기 걸린 물고기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주세요</p>	<p>소문 카드</p> <p></p> <p>-----</p> <p>-----</p> <p>-----</p> <p>이 카드는 소문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p>	<p>소문 카드</p> <p>-----</p> <p>-----</p> <p>-----</p> <p>감기 걸린 물고기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주세요</p>	<p>소문 카드</p> <p></p> <p>-----</p> <p>-----</p> <p>-----</p> <p>이 카드는 소문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p>
---	--	---	---

활동지 3.

다시 쓰는 '감기 걸린 물고기'

<p>① “애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p>	<p>▶ 여러분의 반응은?</p>
<p>“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p>② “애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p>	<p>▶ 여러분의 반응은?</p>
<p>“감기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이 친구들 큰일나겠군!”</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p>③ “애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p>	<p>▶ 여러분의 반응은?</p>
<p>“애들아~ 파란물고기도 감기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 좀 봐~”</p>  <p>[출처] 박정섭 (글·그림),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2016)</p>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3

문학작품에 나타난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민성과 연대

박재준

03

문학작품에 나타난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민성과 연대

학습목표

- 문학작품에 나타난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팬데믹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 시민성의 회복과 연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키워드

- 시민성, 인권, 팬데믹, 전염병

핵심역량

- 감정이입, 공감능력,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와 같은 정서적 기능
-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국어, 미술, 사회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그림을 이야기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기분을 미술작품으로 나타내기 • 그림에 담긴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로 만들어 발표하기 	그림에 담긴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로 표현	10분
전개	인물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이 처한 상황 이해하기 •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상황 속 인물이 되어 생각과 감정을 표현	30분
	'문화작품' 과 '지금의 나' 연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상황 정리하기 • 코로나19 상황과 연결하기 • 시민성과 연대의 가치 이해하기 	문학작품 속 상황과 코로나 19 상황을 연결하여 시민성과 연대의 가치에 공감	20분
정리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하기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	20분

교수학습법

예술/미술 기반 인지 학습 (art-based learning)은 인지적 학습 경험과 정서적 학습 경험을 연결하는 학생 중심 접근법으로 인간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유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림을 이야기로 표현하기 (Step 1)

활동목적

그림에 담긴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활동방법

- 색깔에 사람의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예) 네, 각 색깔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느 그림에 가깝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아침부터 친구들과 즐거운 놀이를 했습니다.



[출처]
작가 : 이월중
제목 : 제주생활의 중도
제작연도 : 2011
사이즈 : 207x297cm
재료 : 장지위에 혼합

예) 아침에 엄마에게 늦잠 잔다고 혼났습니다.



[출처]
작가: 빈센트 반 고흐
제목: 별이 빛나는 밤
제작연도: 1889
사이즈: 73.9x92.1cm
재료: 캔버스에 유화

-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며 자세히 보며 이야기해봅시다.



[출처]
 작가: 에드바르 뭉크
 제목: By the Deathbed
 제작연도: 1895
 사이즈: 90x120 cm
 재료: 캔버스에 유화

-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예) 슬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입니다.
-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침대 위에 흰 옷을 입고 누워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예) 슬픔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있습니다.
- 그림에서는 주로 어떤 색이 사용되었나요?
 예) 검은색, 짙은 갈색, 흰색
- 그림의 상황을 상상하며 짧은 글짓기로 표현해봅시다.
 예) [어느 소녀의 일기] 갑자기 이유 모를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지금 휴가를 가 있을 시기이고, 마스크 공장은 작년에 망해서 문을 닫았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큰일이다. 아버지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모두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빠르게 달리기를 하다 멈춘 사람처럼 거칠던 아버지의 숨이 어느 순간 끊겼고...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나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병은 무엇일까?

교사를 위한 팁 그림에서 이야기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주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물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기 (Step 2)

활동목적

문학작품 속 인물이 되어 주어진 상황에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활동방법

'페스트'책에 제시된 상황을 현대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잘 듣고 '나'의 감정에 주목하며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바다의 도시 오랑을 찾아오다.



나의 이름은 (예: 로스토프 / 팝콘 / 해바라기 / 호박 / 천사 / 석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4월이 되어 가족들과 '오랑'이라는 도시에 여행 왔습니다. 현대적이고 바쁘지만 언덕 너머에 있는 바다가 주는 낭만은 이곳을 찾는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바다가 불러주는 노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에 나를 남겨 했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께 손을 흔들며 나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바다와 하늘 그리고 별을 사진에 담을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상황1〉 전염병이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들이 떼를 지어 비틀거리며 제자리에서 맴을 돌다 죽어버렸다네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쥐가 아닌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문에서는 며칠 동안 사망자는 10여명 밖에 되지 않더니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랑시의 시장은 시민들에게 전염병 사태를 알리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1.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 온 도시가 봉쇄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만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진 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염병이 퍼진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내가 마주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예시>

내가 마주한 문제점	해결방법
1. 식량이 없다.	1. 가진 돈으로 음식을 구한다.
2. 아는 사람이 없다.	2.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한다.
3. 머물 곳이 없다.	3. 일자리를 알아본다.

2. 몇 시간째 굶주린 배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어린 소년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소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예시>

- 내가 샀던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소소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 내 몸을 최대한 보호하고 물을 나눠준다.
- 119를 부른다. ‘침착해’라고 해준다.
-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

<상황2>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채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도시가 봉쇄되자 오랑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식량과 휘발유를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눠주었습니다. 상점에 손님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져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술이 세균을 죽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사람들은 술집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박하사탕'이 전염병 예방효과에 있다는 소문, 기름칠한 우비를 입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괴한 소문에도 사람들은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사람들은 8월의 더위와 전염병에 이성을 잃은 듯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도둑질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정부는 폭동에 대비해 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사람들을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하는 듯 보입니다. 도시의 외로운 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오랑시의 시민이 아닌 나는 식량 배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오랑시 시민들의 배려인건가요? 신문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 <예시>

신문기자 : 오랑시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도 식량배급도 못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식량을 배급하고 의료혜택을 주는 현재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

-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은 세금도 내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그냥 놀러 온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먼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온 사람이라고 해도 지구에 있는 같은 생물이고 인간인데 의료혜택은 조금만 주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식량을 똑같이 배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랑시의 시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 온 사람들도 오랑시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랑시의 시민들만 보호해 주는 이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봉쇄 했으면서 식량도 배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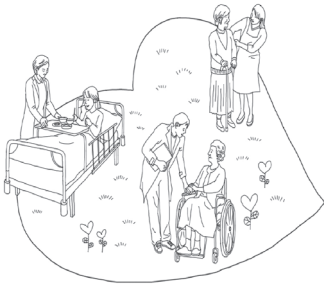
-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차별은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공정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2. 나의 딱한 상황을 듣고 기자는 확진자 격리 시설로 사용되는 호텔을 가리키며 이곳에서라도 묵을 생각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공포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몇몇 사람들은 마을을 봉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웃 마을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제 정부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위반할 경우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 ● <예시>

- 막막하다. / 답답하다. / 무섭다. / 두렵다.
- 정말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격리시설로 가서 묵게 된다면 경비가 더 심해질것이고, 제한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호텔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 호텔을 알려 주는 건 고맙지만, 날 확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이 좀 나쁘고 혼란스럽다.
-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지? 불안하고 집에 가고 싶다.
- 몸을 최대한 감싸고 호텔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 혼자 있어서 무섭고 마을 밖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 온데 간데 못하고 있는 심정은 마치 사방이 적인 것 같은 느낌이다.
- 내가 왜 여행을 왔나 후회되고 슬프고 그립고 무서울 것 같다.
-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닥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 굳이 여기를 왜왔을까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
- 눈을 길게 감았다 뜨면 집에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심란하고 무섭다. 진짜 두렵고 정신이 나갈 것 같다.
- 언제쯤이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 무섭고 꿈이길 바란다.

〈상황3〉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있다.



호텔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자원보건대'를 조직하여 전염병과 싸우자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참함과 고통을 보며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며,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치료하고 끝까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건너편의 누군가도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여행자로서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원보건대에는 정신 없이 뛰어다니는 의사는 물론이고 60살은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환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아저씨는 환자들에게 담요와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1. 자원보건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시다. 화가인 나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오랑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나는 자원 보건대에서 일을 해야 할까요?

● 〈예시〉

나는 자원보건대에서 일을 (한다. / 안 한다.).

- 왜냐하면 나만 괜찮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괜찮아야 끝난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니 화가인 나에게까지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힘든 분들이 많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은 적기 때문이다.
- 얼른 전염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자원보건대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것이다.
- 자기 자신도 어려워 봤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일이면 일을 해야 된다.
-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다.
- 내가 힘들 때 외면하던 사람들의 도시를 위해 일 할 수는 없다.

2. 어렸을 적 생각했던 ‘영웅’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영웅’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과연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 <예시>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란?

그 이유는

-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란 진짜 사람들이 힘들 때 먼저 나서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영웅이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나서서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쉬고 싶어할 때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피할 때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 남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에 직접 나서서 대신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웅인 것 같다.

<상황4> 전염병이 사라지고 있다.



어느새 1월이 되었습니다. 오랑시의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전염병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망자와 확진자의 수는 하강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본래의 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속에 전염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병균은 의지가 없지만 건강, 청렴, 순결함은 결국 나의 의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길’을 걷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내 마음 속의 전염병'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시〉

- 자신의 상처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내면 또 그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또 그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는 게 반복 되어서 퍼져나가고 그 상처는 아물어지기는 커녕 더욱더 커지는 것
- 기분이 정말 나빠서 짜증이 올라왔을 때, 말이 뇌에서 바로 나와 상처를 주는 것
-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
- 질투나 시기나 부정적인 감정들
- 다른 사람의 무관심
- 따돌림과 괴롭힘의 전염병
- 편견, 불평, 탐욕, 욕심
- 욕, 비하 하는 말
- 이기적인 마음
- 차별하는 세상
- 편견과 차별
- 놀리는 것
- 나쁜말

2.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학급, 학교, 마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례를 찾거나, 뉴스를 검색하여 찾아본다.)

—●〈예시〉

- 유치원 버스 사고가 있을 때 시민들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구해 인명피해가 없었다.
-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의사 분들과 간호사분들이 대구로 내려갔던 사례이다.
- 이웃 분이 많은 짐을 나르면서 가다가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 같이 물건을 주웠다.
- 어떤 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인상 깊었다.
- 우리 학교에서 '길 고양이와 함께 걸어요' 라는 것을 해 길 고양이를 도와주었다.
- 작년 강원도 이재민을 위해 학교에서 바자회를 열어 이재민을 도와주었다.
- 어떤 사람이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자릴 비켜준 것
-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에게 굿네이버스 편지를 쓴 일

교사를 위한 팁

- 상황의 흐름을 잘 이해하며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문화작품' 과 '지금의 나' 연결하기 (Step 3)

활동목적

문학작품 속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연결하여 시민성과 연대의 가치에 공감합니다.

활동방법

- 각 상황을 설명하는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빈칸에 적어보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을 찾아 빈칸에 칠해봅시다.

프롤로그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기대 설렘	두려움 불편함	절망 무서움	협력 복구	빛 행복
하늘색 파란색	갈색 검정	붉은색 검은색	초록색 연두색	하얀색 노란색

- 작품에서 느껴진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봅니다.

책 '페스트'에 제시된 상황	현재 코로나19 상황
전염병이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었다.	손 소독이 필수가 되었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을 피하고 있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사 분들이 마스크 안 쓴 사람에게 마스크 안 쓰면 못 탄다 했는데 갑자기 기사 분을 때리고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 붙는 상황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있다.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온라인 수업을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 마스크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 지키는 사람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전염병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진 않지만 사라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팁

- 현재 코로나19의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 문학작품과 현실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고, 문학 작품의 결말을 통해 현실의 결말을 미루어 짐작해보며, 바람직한 현실의 결말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문학, 그림,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예술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Step 4)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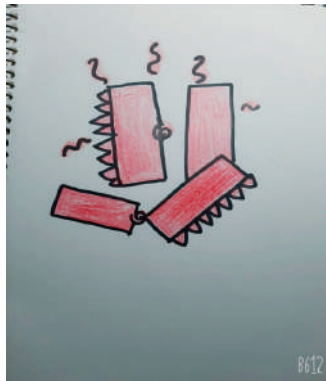
작품의 인물이 되어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활동방법

- 오랑시에서 경험한 일을 그림으로 그려 SNS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봅시다.
-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에서의 인물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연대하고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지금의 나'와 '40살의 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어봅시다.



상황1 #답답함 #구속



상황2 #폭력 #가시



상황3 #도움 #협력



상황4 #다시 #새싹 #새생명

교사를 위한 팁

- 상황의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결정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해시태그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 온라인 수업에서는 구글 설문지를(‘섹션추가’를 활용하면 단계별 제시 가능함)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p>상황제시</p>	
<p>관련질문</p>	<p>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내 마음 속의 전염병'이란 어떤 것일까요? *</p> <p>질문할 텍스트</p> <hr/> <p>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학교, 학교, 마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례를 찾거나, 뉴스를 검색하여 찾아봅시다.)</p> <p>질문할 텍스트</p> <hr/>
<p>결과 확인</p>	<p>상황4) 전염병이 말소되고 도시가 붐볐다</p> <p>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은 도시가 붐볐었습니다. 부모님과 만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진 돈도 쓸물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염병이 퍼진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마주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문제점-해결방법을 순서대로 적어봅시다)</p> <p>총합 17개</p> <p>문제점: 낯선 곳에서 돈도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 해결방법: 친구를 만나고, 돈을 빌려서 버려서 일단은 쓰고 나중에 2배를 친구에게 준다.</p> <p>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끼니를 챙겨먹기 힘들다 일단 가진 돈으로 상수를 구매하고 그걸로 조금씩 아껴먹는다. 인간은 불안 있으면 사니까</p> <p>돈이 충분하지 않다. 전염병으로 인해 나가기가 어려워 사는데 필요한 음식들이 부족하다. -음식을 수통물을 끓여마시고 채소같은건 직접 키워먹는다</p> <p>문제점을 현재 전염병으로 말법한 사회생활을 할수 없고 돈도 못벌고 해결방법 어려워든 아껴쓰고 부모님께 편지로 자신의 생각을 알립니다.</p> <p>침착하고 도움이 될의사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든다</p> <p>돈이없다. 하지만 이미 봉쇄된 도시이니만큼 돈을 낼필요가 없을것같다</p> <p>먹을게 있다-가진돈으로 최대한 이득의 음식을 산다(약과 많은것이나 빵)</p>

- '지금의 나'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초등학생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며 (예: 보건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리기, 개인 위생 잘 지키기, 덕분에 챌린지 참여하기 등) '40살의 나'는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직업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미래명함만들기'로 표현해도 효과적 입니다.

더 알아보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랜데믹 (이매진, 2020)
- 알베르 카뮈, 페스트 (북플라자, 2020)
- tvN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23화 페스트", http://program.tving.com/tvn/the-page-turners/4/Vod/View/VOD/EA_80808
- 시사상식 연구소,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 (시대고시기획, 2020)
- 한겨레, "무차별 공습 뚫고 6만명 구한 '하얀헬멧'",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757540.html#csidx1e1216aed3835808394f4497e684b09>
- 사이언스타임즈, "역사의 현장엔 언제나 SNS가 있다"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7%AD%EC%82%AC%EC%9D%98-%ED%98%84%EC%9E%A5%EC%97%94-%EC%96%B8%EC%A0%9C%EB%82%98-sns%EA%B0%80-%EC%9E%88%EB%8B%A4/?cat=29>

활동지 1.

나의 이름은 ()입니다.

<상황1> 전염병이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었다.



1.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 온 도시가 봉쇄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만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진 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염병이 퍼진 도시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내가 마주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내가 마주한 문제점	해결방법

2. 몇 시간째 굶주린 배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어린 소년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소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황2〉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채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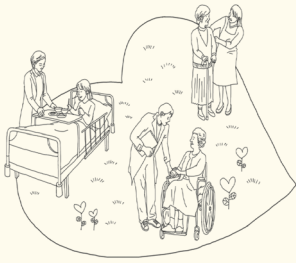
1. 오랑시의 시민이 아닌 나는 식량 배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오랑시 주민들의 배려인건가요? 신문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신문기자 : 오랑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도 식량배급도 못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식량을 배급하고 의료혜택을 주는 현재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

2. 나의 딱한 상황을 듣고 기자는 확진자 격리 시설로 사용되는 호텔을 가리키며 이곳에서라도 묵을 생각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공포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몇몇 사람들은 마을을 봉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웃 마을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제 정부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위반할 경우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상황3〉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있다.



1. 자원 보건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화가인 나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오랑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나는 자원 보건대에서 일을 해야 할까요?

나는 자원 보건대에서 일을 ().

왜냐하면

2. 어렸을 적 생각했던 ‘영웅’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영웅’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과연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란?

그 이유는

〈상황4〉 전염병이 사라지고 있다.



1.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내 마음 속의 전염병'이란 어떤 것일까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yellow background,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answer to question 1.

2.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학급, 학교, 마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례를 찾거나, 뉴스를 검색하여 찾아본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yellow background,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answer to question 2.

활동지 2.

- 각 상황을 설명하는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빈칸에 적어보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을 찾아 빈칸에 칠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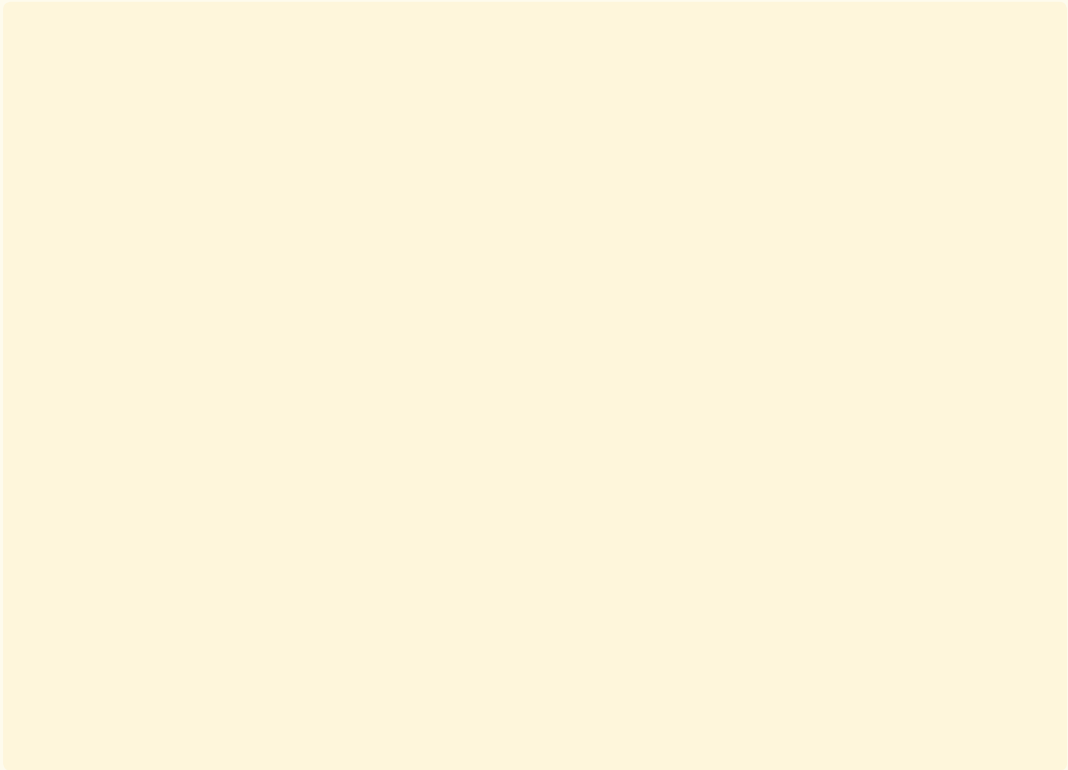
프롤로그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 작품에서 느껴진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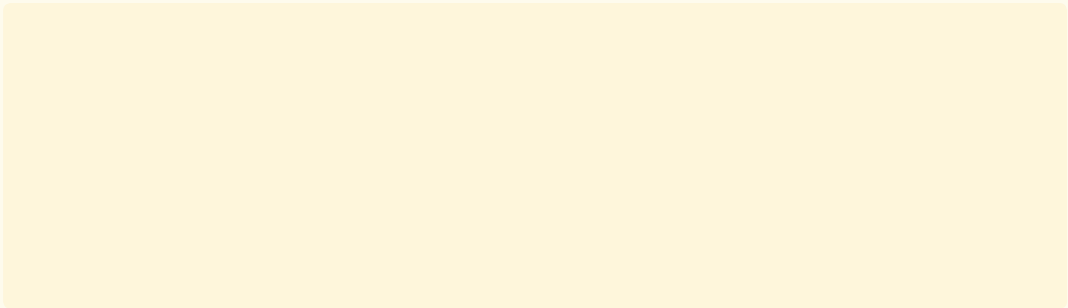
책 '페스트'에 제시된 상황	현재 코로나19 상황
전염병이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었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있다.	
전염병이 사라지고 있다.	

활동지 3.

- 오랑시에서 경험한 일을 그림으로 그려 SNS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봅시다.
-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에서의 인물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조형요소(점, 선, 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해보세요.



-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해쉬태그를 달아주세요.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4

팬데믹 상황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력

박재준

04

팬데믹 상황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력

학습목표

-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평등을 팬데믹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다.

키워드

- 시민성, 인권, 팬데믹, 연대(solidarity), 사회적 약자, 포용

핵심역량

- 감정이입, 공감능력,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와 같은 정서적 기능
-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TV쇼 '무인도의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쇼 '무인도 의 법칙' 소개하기 	'무인도의 법칙'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역할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분
전개	불평등게임 참여하기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정하기 • 사과 게임하기 • 개인의 판단으로 사과 나누기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활동을 통해 경험해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30분
	불평등게임 참여하기 (물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게임하기 • 공동체 협의 과정을 통해 물고기 나누기 	불평등 게임(물고기)에 참여해보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40분
정리	우리 사회와 연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알아보기 •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 • '백신 민족주의' vs '백신 공공주의' 토의하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 만들기에 공감 합니다.	40분

이벤트 기반 학습을 활용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평등 이해

교수학습법

이벤트 기반 학습 (event-based learning)은 몇 시간이나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며, 참여하는 학습자의 기억에 특정한 감각이나 행동이 기억되도록 하는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상황으로의 몰입을 통해 감정이입과 공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데 유용한 교수학습법입니다.

TV쇼 '무인도의 법칙' 안내하기

활동목적

'무인도의 법칙'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역할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방법

◎ (도입) TV 쇼 '무인도의 법칙' 소개하기

- 여러분은 TV쇼 '무인도의 법칙'에 초대 받았습니다. 무인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안내판에서 제시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모두 무사히 무인도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무인도는 3000년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신비의 섬입니다.

먼저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무인도 살기를 하게 된 A, B 그리고 C 씨를 소개합니다.

A씨는 체격이 건장하고 재주가 많아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보통의 체격을 가진 B씨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C씨는 현재 다리를 심하게 다쳐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량은 무인도에 있는 커다란 사과나무와 전설의 우물에서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식량을 구한 후에는 토의토론을 거친 후에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사히 무인도에서의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쇼를 시작합니다.

활동목적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활동을 통해 경험해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활동방법

◎ (도입) 첫 날 아침

- 무인도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명씩 조를 구성하고 역할 A, B, C를 뽑습니다.
 - 사과 나무에 달린 맛있는 사과를 채집하세요.
 - 조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사과를 나누어 먹습니다.

◎ <활동 1> 사과 게임하기

-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사과 게임을 해봅시다.
- 5m 앞에 있는 사과나무(책상)에 사과(모형)가 30개 달려있습니다.



<게임방법>

준비물: 책상1, 사과모형30개, 개인 바구니3개, 출발선 표시(마커)

- 3명씩 조 구성하기
- 가위·바위·보로 1등부터 원하는 역할(A, B, C) 고르기
- 출발선에서 대기
- 역할별 지시사항에 따라 사과모형을 가져와 개인바구니에 담기

- 3명씩 조를 구성하고, 조원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A, B, C 역할을 맡아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게임에 참여합니다.

역할	역할내용
A	힘이 센 A는 한 번에 두 개의 사과를 옮길 수 있습니다.
B	B는 한 번에 한 개의 사과를 옮길 수 있습니다.
C	다리가 다친 C는 갹갹이로 움직이며 사과를 옮겨야 합니다.

- 이제 1조부터 출발선에 서고, 출발신호에 맞춰 사과를 가져와 출발선에 있는 자신의 개인바구니에 담습니다. 사과나무의 모든 사과를 가져가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 개인이 획득한 사과의 개수를 정리(활동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면 종료합니다.

◎ <활동 2> 사과 나누기

- 이제부터 무인도에서의 첫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과 나누어 먹는 방법’이라는 지시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골라 맛있는 식사를 시작하세요.

유형	사과 나누어 먹는 방법
1	본인의 사과는 본인이 먹습니다.
2	우리 조 사과를 모두 모아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3	A와 B는 갖고 있는 사과의 ‘어느 정도’를 C에게 나누어 줍니다.

- (개인) 가장 적절한 ‘사과 나누어 먹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조별토의) 토의활동을 통해 우리 조의 ‘사과 나누어 먹는 방법’을 결정해봅시다.
-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나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나요?

◎ 정리하기

- 사과게임을 돌아봅시다.
 - 우리 조에서 가장 많은 사과를 가져간 역할은 누구였나요?
 - 반대로 가장 적은 수의 사과를 가져간 역할은 누구였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과 나누기 과정을 돌아봅시다.
 - 토의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됐나요?
 - 사과 나누기 토의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주세요.
 - 제시된 ‘사과 나누기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학습지)
- 결정된 사과 나누기 분배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결정된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다른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리 조에서 결정한 분배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 각자 게임에 참여한 소감을 말해봅시다.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토의토론 과정 시간을 제한하여 조별(혹은 전체)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과와 돌멩이는 (고무)공 혹은 이면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 활동 후 학생들이 역할 A, B, C의 입장에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과 결과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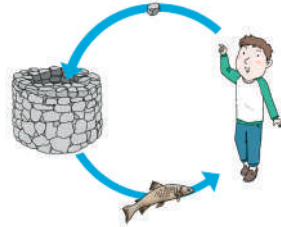
불평등 게임에 참여해보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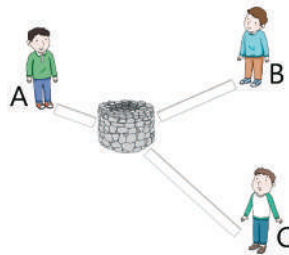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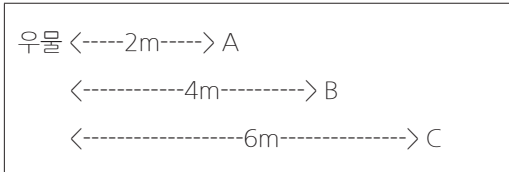
◎ <동기유발> 무인도의 신비한 우물

무인도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되어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무인도에는 신비로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돌맹이를 넣으면 그 수만큼 물고기를 내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활동1> 신비의 우물에 돌맹이 넣기



역할	구성 내용
A	눈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A는 우물에서 2m 떨어진 곳에서 돌맹이를 던집니다.
B	B는 우물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돌맹이를 던집니다.
C	몸 상태가 좋지 않은 C는 우물에서 6m 떨어진 곳에서 돌맹이를 던집니다.

- Step 1과 동일한 조 구성원들끼리 시험에 참여하며, 1단계와 같은 역할로 참여합니다.
- 각자 우물에 들어간 돌맹이 수를 기록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면 종료합니다.

◎ <활동2> 마을 구성하기

이제 역할에 따라 마을을 구성해보겠습니다.

A마을 구성원	B마을 구성원	C마을 구성원
1조 A학생	1조 B학생	1조 C학생
2조 A학생	2조 B학생	2조 C학생
3조 A학생	3조 B학생	3조 C학생
4조 A학생	4조 B학생	4조 C학생
...

각 마을의 총 물고기 수를 확인합니다.

	A마을	B마을	C마을
물고기 수			

◎ <활동3> 물고기 분배 토의하기

• 이제 무인도에서의 두 번째 식사시간을 앞두고 물고기 분배하는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토의 활동을 통해 물고기를 나누어 갖겠습니다.

- (개인)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 (마을) 각 마을의 의사결정권자를 선발하고, 마을 안에서 분배방법을 토의해 봅시다.

<예시> 1. 각 마을 별로 잡은 물고기를 먹는다. 2. 공정하게 모두 똑같이 나누어먹는다. 3. 가장 많은 마을의 물고기 10%, 그 다음 마을의 물고기 5%를 가장 빈곤한 마을에 기부한다.

- (전체회의1:대표자) 마을의 의견을 모아 '마을대표간 토의'를 진행해봅시다.
- (마을) 각 마을에서 제안하는 분배방법을 정리하여 마을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 (전체회의2:전체) 전체 회의를 통해 분배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해봅시다.

◎ 정리하기

- 신비한 우물 게임을 돌아봅시다.
 - 우리 조에서 가장 많은 돌맹이를 넣은 역할은 누구였나요?
 - 반대로 가장 적은 수의 돌맹이를 넣은 역할은 누구였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마을 구성하기 활동을 돌아봅시다.
 -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었나요?

- 마을 구성과정에서 불편한 점,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나요?
- 물고기 나누기 토의활동을 돌아봅시다.
 - 토의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주세요.
 - 결정된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다른 마을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다른 마을 구성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분배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 마을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과, 물고기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C마을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 우리 사회가 C마을의 구성원을 소외시키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C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게임에 참여하며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간단한 소감을 적어봅시다.

교사를 위한 팁

- 학생들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토의토론 과정 시간을 제한하여 조별(혹은 전체)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연대, 포용 등)에 집중하여 지도해주세요.
- 사과 게임에서 흔쾌히 양보하고 배려하던 학생이 물고기 게임에서는 침묵하거나 다른 마을에 기부하는 행위를 손해 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감의 분산'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도해 주세요.
-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물은 높이 30cm 이상의 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와 연결하기

활동목적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 만들기에 공감 합니다.

활동방법

◎ <전 차시 학습 상기> 무인도 게임을 되돌아 봅시다.

- 역할A,B,C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A,B,C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 '사과 나누기'와 '물고기 나누기'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요?

- 혼자 결정할 때와 그룹에서 결정할 때 결과가 달랐나요? 왜 그랬을까요?

•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동기유발> 사회적 약자의 마음 이해하기

'노키즈존 (No Kids Zone)'에 대한 다음 일기를 읽어봅시다.

No.

제목	우태의 눈물	지은이	전 이수
원문일	월 일 - 월 일	기록일	
특사항		선생님 확인	
읽고나서	<p>11월 19일</p> <p>내도 생우태가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우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1시간 거리에 먼 나들이를 하기로 했다. 자식은 내가더 기다렸었다. 스테이크가 먹고싶었기 때문이... 우태가 2년전에 먹고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 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생일날까지 기다렸다가 가기로 한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있는지 우태는 가늠내내 못느끼고 신이나 있었다. 나도 또한 그랬다. 드디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때 우태랑 나는 마구달려서 샐러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어떤 우다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꿈쩍도 안고 서있는 우태의 등을 문쩍으로 때밀며 "들어오면 안되요?" 한다. 그래서 난 "저희도 밥먹으러 온거예요" 했더니</p>		

No.

제목	지은이	전 이수
원문일	월 일 - 월 일	기록일
특사항		선생님 확인
읽고나서	<p>누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는 노키즈존이야!" "그게 뭐예요?" "키니까" "아들들 여기 못들어온다는 뜻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는 밥먹으러 왔다가야. 오늘 계동생 생일이거든요!" 그누나는 화가난채로 도망치말았다. "여기는 너희는 못들어와, 얼른나가!" 난 기분이 좋지않았다. 우태는 심마한 얼굴로 조금씩 밥을 옮기 시작했다. 문밖을 나와 우태를 보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있었다. 그때 다짐. 엄마와 우태를 보았다. "우리는 못들어오는 식당이냐" "아니네 엄마" "예전에 다같이 왔었는데 그럴일이" 한다. 얼마나 한참 들어갔다 나와서 안되겠다 우리 다룬예까지! 우태야, 여기 식당에 놀러하는 식찬이 귀수술을 했나봐 당분간은 아주조심히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 하고말했다. 난 안다. 엄마의 얼굴이 만해죽고 있었다. 우태의 슬픔은 내마음도 임의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 우태는 돌아가는내내 "먹고싶어! 아무말안하고 먹으면 되잖아" 하고 울었다.</p>	

제목

원문일	월 일 - 월 일	지은이	기록일
특사항		선생님 확인	
읽고나서	<p>조용히 우태를 안아주는 엄마는 애도 슬픔이 가득해 보였다. 어른들이 조용히 있고 싶고, 아들이 없거나 편안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것을 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난 생각한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싶어하는 그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날수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것을... 그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잊고 지나 보다. 어른들도, 구어린것하는 사실을... 얼마 전에 봤던 변화. 인 생은 아꿈다위에서 아버에게 물어보는 아들의 대사가 생각난다. "아빠! 왜 개와 유대인들은 가게에 들어갈수없어요?"</p> <p style="text-align: center;">- 이수 생각 -</p>		

[출처] 전이수 인스타그램 @jeon2soo

- 글쓴이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어른들은 잊고 있나보다, 어른들도....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책의 표지를 보며 이야기해봅시다.
- 책의 제목과 그림을 생각하며 책의 내용을 상상해 말해봅시다.
-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처] 박진숙,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
(에코팜므·맑은나무, 2019)

◎ <활동1> 사회적 약자 이해하기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어린이라는 이유,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나다움’(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장애, 성소수자, 여성, 나이, 종교, 국적, 경제적 차이 등)
- 이렇게 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는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 “어른들은 잊고 있나보다, 어른들도....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 무인도 게임을 떠올려봅시다. 우리는 다리가 다친 C를 어떻게 대했나요? C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봅시다.
-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활동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 이해하기
 -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 장애인 자가 격리가 가능할까? (BBC뉴스,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에 미친 영향 4가지)
- 청각 장애인 정보 소외 (BBC뉴스,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에 미친 영향 4가지)
- 마스크 대란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 (BBC뉴스,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에 미친 영향 4가지)
-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hey뉴스)
- 발생부터 유행과 확산, 대응, 결과와 영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과 사건은 경제적 약자에 불리하다. (얼티플 팬데믹)

- 현재 여러 국가에서 백신과 치료 약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약품의 분배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의견을 잘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의해봅시다.

백신 민족주의	백신의 공공성
<p>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백신 구매에 투자하여 우리 국민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p>	<p>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집단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백신은 돈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우선 각국 인구의 20%를 동시에 분배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p>

◎ <정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하기
 - 혐오와 차별의 문화에서 벗어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봅시다.
 - 일상에서 함께하는 캠페인을 찾아 참여해봅시다. (예시: 덕분에 캠페인, 런택트 마라톤 등)
 -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봅시다.

이적 - '당연한 것들' 가사 (작사·작곡 이적)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굴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교사를 위한 팁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연대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수업합니다.
-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서로 연대하여 포용하고 상생하는 세계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여 지도해주세요.
- 수업 시연 결과, '당연한 것들' 가사와 악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연습 후 각자 유튜브에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기모란 외, 멀티플팬데믹 (이매진, 2020)
- 채사장,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웨일북, 2017)
- KBS1, 이슈 PICK, 짹과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어디까지 와 있나?”,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372&program_id=PS-2020117684-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8
- EBS 지식채널 e, “38명의 목격자-책임감의 분산”, <https://jisike.ebs.co.kr/ji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stepId=&lectId=1177890>
- 참세상PICK, “코로나19 ‘백신 제국주의’와 ‘글로벌 공공재’ 국제주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9>
- 머니투데이, “WHO “주요 강대국들이 코로나 대응에 협력 안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907451121071>
- BBC뉴스,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친 영향 4가지”,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97503?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활동지 1.

불평등 게임(사과) 참여하기

역할	역할내용
A	힘이 센 A는 한 번에 두 개의 사과를 옮길 수 있습니다.
B	B는 한 번에 한 개의 사과를 옮길 수 있습니다.
C	다리가 다친 C는 갱쟁이로 움직이며 사과를 옮겨야 합니다.

유형	사과 나누어 먹는 방법
1	본인의 사과는 본인이 먹습니다.
2	우리 조 사과를 모두 모아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3	A와 B는 갖고 있는 사과의 '어느 정도'를 C에게 나누어 줍니다.

◎ 정리하기

- 사과 나누기 과정을 돌아봅시다. 모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음	반영되지 않음	보통	반영됨	매우 반영됨
--------------	---------	----	-----	--------

- 사과 나누기 토의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주세요.

토의 과정에서 잘된 점	토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

- 제시된 '사과 나누기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유형1	유형2	유형3
장점			
단점			

- 결정된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	----	----	----------

- 다른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리 조에서 결정한 분배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	()

- 우리가 C를 배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여 말해봅시다.

- 게임에 참여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활동지 2.

불평등 게임(물고기) 참여하기

- 토의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됐나요?

전혀 반영되지 않음	반영되지 않음	보통	반영됨	매우 반영됨
---------------	---------	----	-----	--------

- 토의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주세요.

토의 과정에서 잘된 점	토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

- 결정된 음식 분배방법을 생각해봅시다. 결정된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	----	----	----------

- 다른 마을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결정한 분배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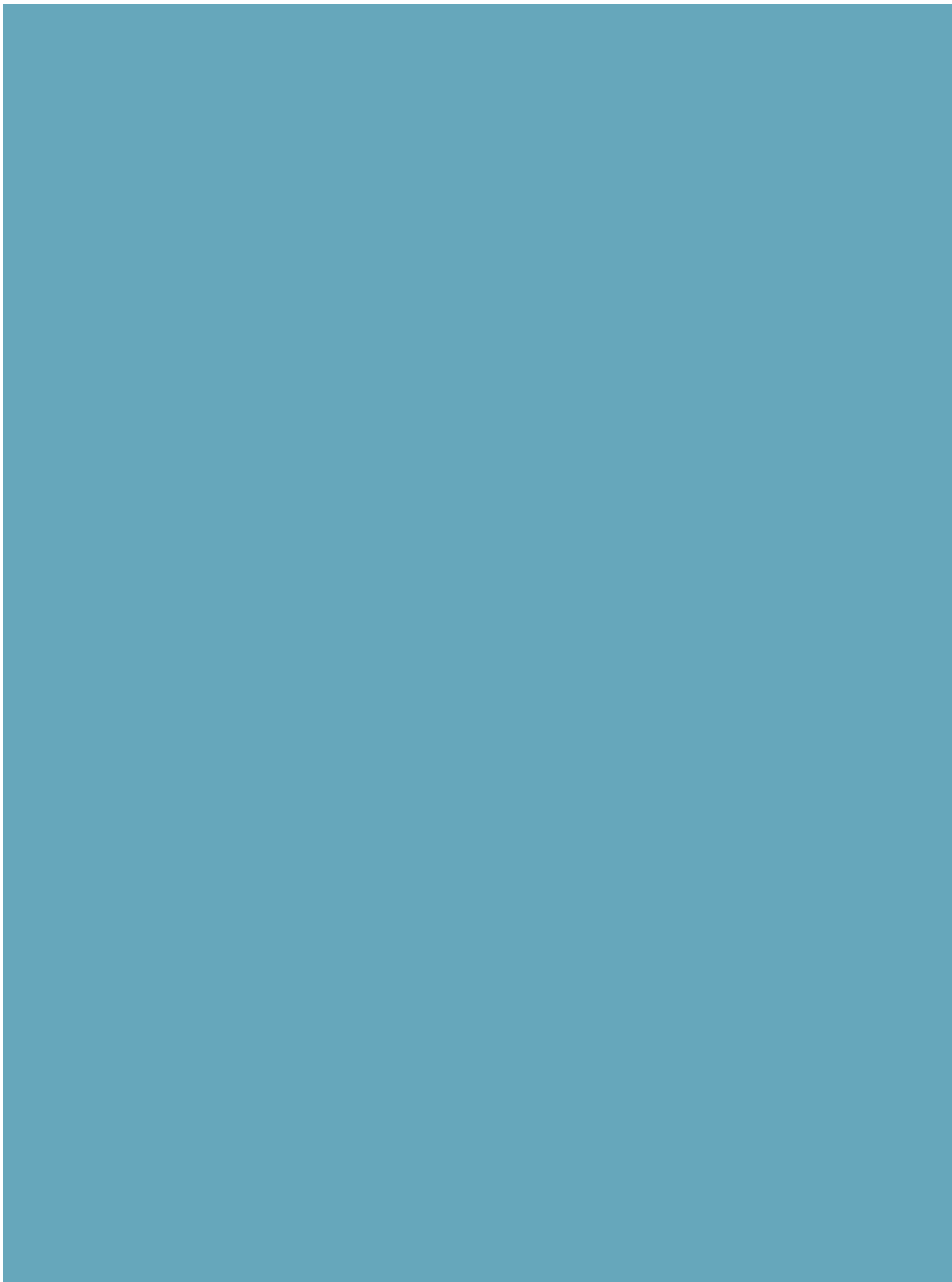
()	()

- C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C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었을까요?

- 우리 사회가 C를 소외시키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그렇다면 우리는 C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게임에 참여하며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간단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5

팬데믹 상황에서의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사고의 전환 가능성 탐구

하승천

05

팬데믹 상황에서의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사고의 전환 가능성 탐구

학습목표

-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배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 팬데믹 상황에서 배려와 실천을 위한 최종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키워드

- 인권, 극단화, 갈등조절, 책임, 의무, 팬데믹, 불평등, 차별

핵심역량

- 보편적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국어, 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전개	코로나19 시대의 공적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L-A 차트활동 • 신문기사 내용 파악하기 • 마스크 배분에 관한 찬성, 반대 입장 설정하기 •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의견 공유하기 	신문기사 속 상황에서의 문제점 파악과 자신의 입장 표현	40분
전개, 정리	마스크 공급 정책자를 설득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의 사회극단화 현상 경험하기 • 역할 변경을 통해 다양한 입장 파악하기 • 자신의 입장을 공유하고 반 전체 의견 청취하기 • 내가 마스크 정책 결정권자라면? • K-W-L-A 차트활동 (평가활동) 	문제상황 이해와 합리적인 결정	40~60분

임계값 지식 교수법과 갈등해결모형을 활용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사고의 전환 가능성 탐구

교수학습법

임계값 지식 교수법 (threshold concept teaching)은 어떤 문제,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는 학습 개념입니다. 한 개념에 대해 일단 이해가 되면 이와 관련된 주제, 현상, 경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핵심 개념을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갈등 해결모형은 지식과 정서적 관련성, 갈등 상황을 연계한 모형입니다.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및 타인의 정서 및 입장을 갈등 상황에서 파악하는 비판적 기술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돕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적 마스크 (Step 1)

활동목적

신문기사 속 상황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마스크 공급에 대한 영상 확인하기〉



공적마스크 배포 현장

[출처] 비디오머그, “‘이래 부족한데 풀긴 될 풀었다카노’...정부 마스크 공급 첫날”, <https://youtu.be/5ZR1t6xrIcE>



공적마스크 외국인 제공

[출처] MBC News, “[뉴스터치] 공적마스크 사각지대 ‘외국인’... 대책 필요”, <https://youtu.be/r8Fkbe8mD5k>

- 영상 내용파악하기
 - 마스크 공급에 관한 2종류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 무슨 내용인가요?
- 국내 시민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나요?

〈역할에 따른 뉴스기사 읽기〉

- KWLA 차트 만들기 (Know: 알고 있는 것, Want to know: 알고 싶은 것, Learned: 새롭게 알게 된 사실, Affect: 활동을 통해 느낀 감정)
- 마스크와 관련된 K(Know)를 작성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마스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 마스크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점을 질문을 통해 적어봅니다.

● 〈예시〉

()의 K.W.L.A 차트 제목: 마스크 대란과 배분 원칙

K(Know) 이미 알고 있는 것 마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것	W(Want to know) 더 알고 싶은 것 :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L(Learned) 새롭게 알게 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모두에게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면 모두에게 배부할 수 있을까요? - 마스크가 부족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구입을 할까요? - 마스크가 부족한데도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A(Affect) 활동을 통해 느낀 감정을 적어봅시다.

- 뉴스기사 내용파악하기
 - 마스크 공급에 관한 2종류의 뉴스 기사를 제공합니다.
 - 무슨 내용인가요?
 - 국내 시민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나요?
 - 외국인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제시해야 하나요?

뉴스기사1

대기 번호표 순식간에 마감...농협 가도 '생명줄'인 마스크 부족

2020-3-2.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0200067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서울 곳곳에서 이를 사려는 시민들의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왔지만 결국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손님들은 마트 앞에서 서성였고, 신경이 예민해진 손님들과 지친 직원들이 실랑이도 벌어지기도 했다.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농협 하나로마트 장안동지점에는 오전 7시부터 마트 밖으로 마스크 줄이 생기기 시작해, 오전 10시께에는 100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번호표를 받으려고 서 있었다. 장안동 지점은 이날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 800매를 오후 2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마트 직원들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줄 서 있는 시민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줬다. 질서 유지를 위해 마트 근처에 경찰이 출동했다. 번호표를 받은 주민 70대 우모씨는 "마스크 판매 소식을 듣고 9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다"며 "공영홈쇼핑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한다길래 여러 번 전화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번호표는 160번대에서 마감됐고, 대기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들은 "내일 판매 예정인 마스크 번호표라도 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한 주민은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 대신 왔다. 오후 2시에 판매한다길래 왔는데, 미리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며 "마스크를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판매하더라도 모두가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적공급으로 마스크 3만개를 확보한 농협 하나로마트 서초구 양재점에서도 장사진이 펼쳐지긴 마찬가지였다. 마트를 둘러싼 대기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갔다. 주차장이 꽉 차자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무리하게 차를 세우는 시민들도 보였다. 차에서 내려 마트로 뛰어 가는 고객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양재동 주민 유모(62)씨는 "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매에 실패했는데, 오늘은 겨우 마스크를 샀다"며 "혼자 와서 마스크를 5장밖에 사지 못했다. 집에 여분이 없어 내일 또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는 "원래 오후부터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 오전 9시에 판매를 시작했다"며 "한 시간에 마스크가 5000개씩 판매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과 달리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아 대기자가 적은 편"이라며 "마스크는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마진 없이 팔고 있는데, 마스크 가격은 마스크 공급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뉴스기사2

건보·신분증 없는 난민·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소외 '방역 구멍'

2020-3-1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405.html

지난 9일부터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없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마스크 구매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 체류 중인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 L씨도 건강보험이 없어 공적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등산 방한용 천 마스크를 구입해 코와 입 주변에 두른 채 지내고 있다. 식당에 가거나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는 부득이하게 한달 전 구입한 방역 마스크 하나를 빨아서 쓰고 있다. L씨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난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은 심각한 전염병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요구라는 점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된 외국인 체류자 역시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9만여명에 이르고, 난민 신청자는 2만~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체류자 250만명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5만명 정도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체류자 67만명이나 외국인 유학생 10만명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농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 고기북 용인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의무적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1회분 정도만 납입한 뒤 못 내는 이주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불평등할수록, 방역망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을수록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가 된다”며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사회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주민자치센터나 지역 내 외국인센터 등에서 마스크를 무료 배급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 나의 입장 결정하기

—●〈예시〉

나의 선택은?

다음 수직선에 여러분의 의견에 가까운 곳에 표시해 봅시다.
질문: 과연 마스크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최초 나의 입장

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1. 자국민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나 임산부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께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2.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K-W-L-A차트〉는 본 수업 전, 후 활동이기 때문에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전 알고 있었던 내용과 활동 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특히, A(Affect)를 첨가하여 학생들의 감정 추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정책자를 설득하라! (Step 2)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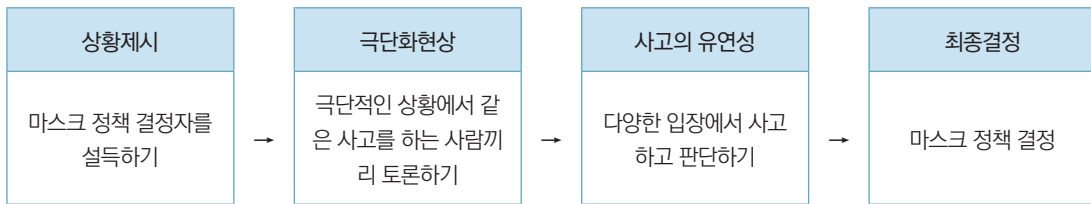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같은 역할을 가진 사람끼리 생각 공유하기-극단화 현상〉

- 마스크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라!
 - 사회현상에서 극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강화됩니다.
 - 다양한 역할의 입장에서 서로 보으로써 균형된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업흐름도〉



- 절차
 - 가. 상황제시
 - 나. 역할카드 배부(1인 1카드)
 - 다. 역할카드 인물 상황 상상하기(모둠나눔)
 - 라. 찬성, 중립, 반대입장 끼리 모이기
 - 마. 각 입장별 2명/4명/8명/모두 모여 의견나누기(중립은 모두 함께 의견나누기)
(수직선표시 및 주장에 대한 근거 세우기)
 - 바. 교사(마스크 정책결정자)의 입장 표명(극단화 현상 및 부정 감성 생성 확인 절차)
 - 사. 역할카드 재분배를 통한 다양한 역할 입장 대변하기
 - 아. 내가 최종결정권라면? (최종결정하기)

〈절차 별 시나리오〉

〈절차〉	〈시나리오〉
<p>상황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선생님이 마스크 정책 결정자라고 해 봅시다. 마스크 정책 결정자로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마스크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제시: 현 대한민국에는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날짜로 코로나19확진자가 어제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p>역할카드 배부 및 인물 상황 상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카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 속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신문기사 내용을 생각하며 각 인물 속 상황을 모둠별 내에서 나눠봅시다. 교사: 각 역할 속 인물이라면 여러분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아님 반대합니까?
<p>찬성, 중립, 반대입장끼리 모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찬성 쪽은 왼쪽으로 반대 쪽은 오른쪽으로 중립은 뒤로 이동해주세요.
<p>각 입장별 2명/4명/8명/모두 모여 의견나누기 (수직선표시 및 주장에 대한 근거 세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찬성 쪽은 왼쪽으로 반대 쪽은 오른쪽으로 중립은 뒤로 이동해주세요. 교사: (구성된 인원에 따라) 먼저 같은 입장은 친구 2명씩 만나 의견을 교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후) 의견교환 후 자신의 생각을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가진 인물에 대한 감정을 표시해 주세요. 이제 4명씩 만나 의견을 교환합니다. (수직선 및 감정표시) - (4분후) 이제 8명씩 만나 의견을 교환합니다.(수직선 및 감정표시) - (8분후) 같은 의견을 가진 모든 친구와 함께 의견을 교환한 후,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를 4가지씩 적어주세요.(수직선 및 감정표시) 중립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중립인 친구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다음 찬성과 반대 입장에 자유롭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p>의견별 모듬구성(예시) -파랑:찬성 -빨강:반대 -노랑:중립</p>	

<p>교사(마스크 정책결정자)의 입장 표명(극단화 현상 및 부정 감성 생성 확인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선생님은 여러분이 적어준 이유와 여러분이 활동 때 마다 표시한 수직선과 감정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직선과 감정, 이유를 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수직선이 <u>한쪽으로 치우쳐</u>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 감정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극단화 현상: 수직선이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극단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 요소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의견을 공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감정 또한 긍정 감정보다는 부정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p>역할카드 재분배를 통한 다양한 역할 입장 대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인물의 입장이 되어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물카드를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섞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여러분이 다시 받은 인물이 되어 봅시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친구에게 손을 흔든 후, 자신의 처지와 마스크 공급에 대한 입장을 교환합니다. (4회 반복)
<p>내가 최종결정권라면? (최종결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여러분이 마스크 공급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수직선에 표시해 봅시다.

〈역할카드〉

이름: 김수민 국적: 대한민국 나이: 32세 특이사항: 임산부	이름: 이영란 국적: 대한민국 나이: 47세 특이사항: 학부모	이름: 박수철 국적: 대한민국 나이: 82세 특이사항: 거동불편	이름: 고정창 국적: 대한민국 나이: 32세 특이사항: 회사원
이름: 유고충 국적: 0000 나이: 62세 특이사항: 노숙자	이름: 소유진 국적: 대한민국 나이: 34세 특이사항: 시각장애인	이름: 배철이 국적: 대한민국 나이: 52세 특이사항: 산골마을거주	이름: 김이랑 국적: 대한민국 나이: 11세 특이사항: 초등학교생
이름: 이형철 국적: 대한민국 나이: 42세 특이사항: 일용직근로자	이름: 손미현 국적: 대한민국 나이: 37세 특이사항: 의사	이름: 하울 국적: 대한민국 나이: 42세 특이사항: 질병관리청	이름: 김시국 국적: 대한민국 나이: 56세 특이사항: 국회의원
이름: 루이 창 국적: 대만 나이: 24세 특이사항: 국내 유학생	이름: 아셔나피 국적: 00 나이: 33세 특이사항: 난민신분	이름: 홍길동 국적: 대한민국 나이: 45세 특이사항: 보건복지부	이름: 자케 위고 국적: 스위스 나이: 52세 특이사항: UN대사
이름: 사카이만 국적: 방글라데시 나이: 35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압둘라에프 국적: 00000 나이: 35세 특이사항: 무허가노동자	이름: 비숍 국적: 러시아 나이: 47세 특이사항: 선원	이름: 마이크 국적: 독일 나이: 38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레이첼 국적: 미국 나이: 25세 특이사항: 국내 유학생	이름: 유카니 국적: 우즈벡 나이: 29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유키 국적: 일본 나이: 35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미네스카 국적: 00000 나이: 32세 특이사항: 무허가노동자

〈입장 및 감정 수직선〉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어요!〉

-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인물카드를 모두 수거합니다.
 -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가 아닌(한 번 앉았던 자리도 제외) 다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 이동하는 모둠 자리마다 상황카드를 제시합니다.
 - 각 모둠마다 이동하여 토론할 때, 제시된 인물카드의 상황을 같이 읽고 이를 배경으로 마스크를 어떻게 배분할지 토론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3-5차례 반복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p>이름: 김수철 나이: 75세 국적: 대한민국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새벽부터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이 많다.</p>	<p>이름: 루이 창 나이: 24세 국적: 대만 상황: 유학생 신분으로 작년에 K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 유학생은 공적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루이 창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p>	<p>이름: 아셔나피 나이: 33세 국적: OO 상황: 2018년 제주도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난민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하지만, 있을 리 만무하다.</p>	<p>이름: 이수민 나이: 21세 국적: 대한민국 상황: 중학교 때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어 장애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약국을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스크를 배송해 주길 바란다.</p>
<p>이름: 박지명 나이: 56세 국적: 대한민국 상황: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마스크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낀다.</p>	<p>이름: 사카 이만 나이: 35세 국적: 방글라데시 상황: 정식 취업가능 비자를 가지고 국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이 있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사러 갈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p>	<p>이름: 압둘라예프 나이: 35세 국적: OOOOO 상황: 취업비자가 끝나 무허가 신분으로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남아 일을 하고 있다. 비록 무허가 노동자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걸 때로는 한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는 살 수 없다.</p>	<p>이름: 비숍 나이: 47세 국적: 러시아 상황: 배를 타는 선원으로 3개월간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사러 갔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내를 여행할 수 밖에 없었다.</p>

〈내가 만약 최종 정책입안자라면?〉

- 학생 개인이 최종 정책입안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 마스크 배분 최종 정책입안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유와 함께 적어봅시다. (최종선택)
-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최종 선택은?

다음 수직선에 여러분의 의견에 가까운 곳에 표시해 봅시다.
질문: 과연 마스크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최초 나의 입장	
	<p>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적어봅시다.</p>

- 실제 정부의 결정은?

알아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0954001&code=910100#csidxadb8ccbc0658364a4b9484dcfaeae16

- 정부의 발표를 보고 나의 결정과 비교해 봅시다.
 - 학생들에게 최종적인 결정과 교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 KWLA 차트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KWLA 차트를 통해 소감을 나눕니다.

()의 K.W.L.A 차트 제목: 마스크 대란과 배분 원칙

K(Know) 이미 알고 있는 것 마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것	W(Want to know) 더 알고 싶은 것 :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L(Learned)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모두에게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면 모두에게 배부할 수 있을까요?	-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스크가 부족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구입을 할까요?	- 한국사람조차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스크가 부족한데도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 마스크 공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Affect) 활동을 통해 느낀 감정을 적어봅시다.

- 활동을 통해 개인이 느낀 감정의 변화를 적어보면서 입장에 따라 감정이 변함을 확인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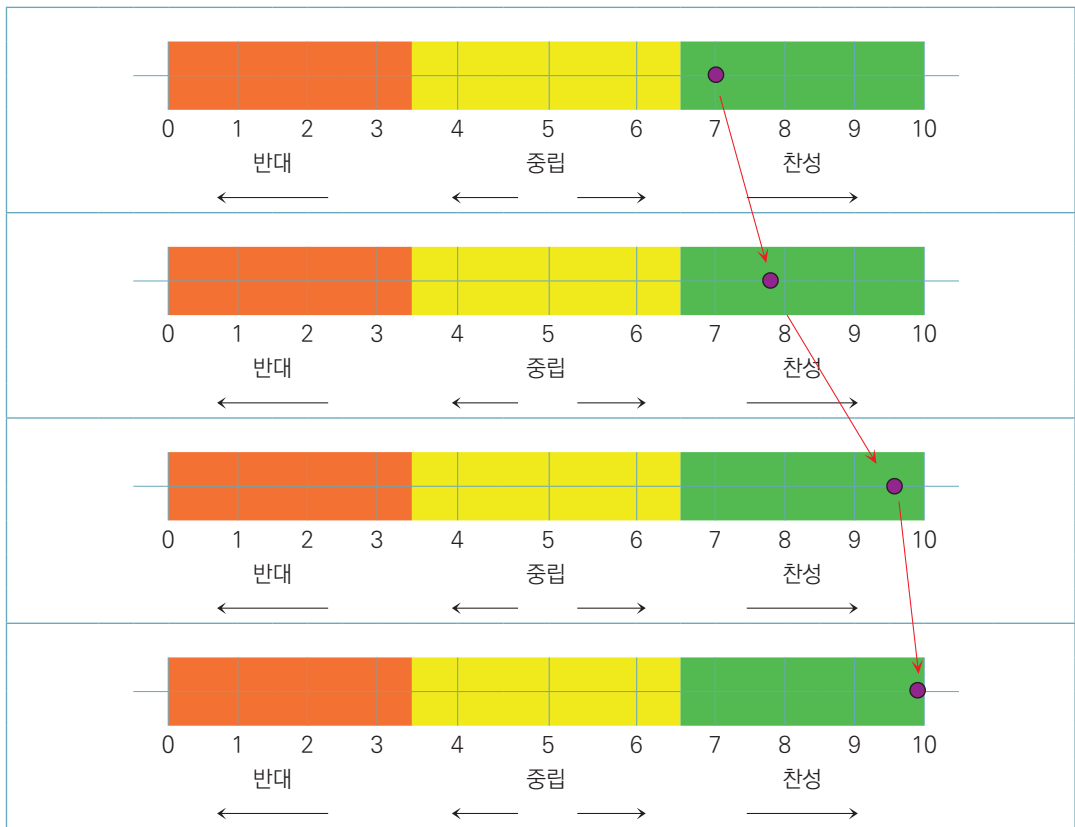
- 역할카드 제공 없이 학생들의 의견만으로도 찬성, 반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할카드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역할카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코로나19상황에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역할카드에 따른 의견을 개인 공책에 적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역할카드 세트를 나눠준 뒤, 학생 별로 다양한 역할을 선택하게 한 후, 그에 따른 입장을 수직선에 표현하고 의견을 공책에 적습니다.
- <K-W-L-A차트>는 본 수업 전, 후 활동이기 때문에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전 알고 있었던 내용과 활동 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특히, A(Affect)를 첨가하여 학생들의 감정 추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역할카드 속 인물을 학생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또는 모둠 별로 구상할 수 있는 인물을 설정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인물에 감정이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역할카드 제작 시 해당 학급 안에 실제로 역할카드의 인물의 상황과 유사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학생들을 배려하여 역할카드를 제작합니다.
- 수직선과 함께 상대편에 대한 감정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모티콘을 사용해도 되면 직접 감정을 서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감정카드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그 감정에 색칠하면 학생들이 쉽게 감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기분좋은	슬픔	짜증나는	역겨운	사랑스러운	그저그런
------	----	------	-----	-------	------

- 사고의 극단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수직선 상에서 생각의 변화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연결해 본 후, 자신의 생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토론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예시



더 알아보기

사회의 극단주의 현상

- 린 데이비스, 극단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 (한울 아카데미, 2014)
- Aronson 외, 사회심리학 제9판 (시그마프레스, 2018)

공적 마스크

- 연합뉴스, “‘5부제’공적 마스크 판매, 외국인에 문턱 높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59300502>
- 법무부 공지사항, “국내 체류외국인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40/523386/artclView.do>
- 아시아경제, “건보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918433604758>
- 한국대학신문, “외국인 유학생 “우리도 공적 마스크 구했어요””,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202>
- 한겨레, “서울시, 공적마스크 소외된 외국인에게 마스크 10만장 지원”,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4972.html>
- 연합뉴스, “고함에 ‘죽여버린다’ 험박도... ‘갈등의 현장’ 약국 앞 순찰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066100004>
- 참여연대, “포르투갈은 외국인에 임시시민권까지...취약층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00532>
- 소셜포커스, “장애인 마스크 대리구매 “등분까지 떼오라구요?”,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1>

수업 모형

- 권낙원, 수업모형, (아카데미프레스, 2010)

활동지 1.

K-W-L-A 학습지

()의 K.W.L.A 차트 제목: 마스크 대란과 배분 원칙

K(Know) 이미 알고 있는 것 마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것	W(Want to know) 더 알고 싶은 것 :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L(Learned) 새롭게 알게 된 사실

A(Affect) 활동을 통해 느낀 감정을 적어봅시다.

활동지 2.

역할카드

이름: 김수민 국적: 대한민국 나이: 32세 특이사항: 임산부	이름: 이영란 국적: 대한민국 나이: 47세 특이사항: 학부모	이름: 박수철 국적: 대한민국 나이: 82세 특이사항: 거동불편	이름: 고정창 국적: 대한민국 나이: 32세 특이사항: 회사원
이름: 유고충 국적: 0000 나이: 62세 특이사항: 노숙자	이름: 소유진 국적: 대한민국 나이: 34세 특이사항: 시각장애인	이름: 배철이 국적: 대한민국 나이: 52세 특이사항: 산골마을겨주	이름: 김이랑 국적: 대한민국 나이: 11세 특이사항: 초등학생
이름: 이형철 국적: 대한민국 나이: 42세 특이사항: 일용직근로자	이름: 손미현 국적: 대한민국 나이: 37세 특이사항: 의사	이름: 하울 국적: 대한민국 나이: 42세 특이사항: 질병관리청	이름: 김시국 국적: 대한민국 나이: 56세 특이사항: 국회의원
이름: 루이 창 국적: 대만 나이: 24세 특이사항: 국내 유학생	이름: 아셔나피 국적: 00 나이: 33세 특이사항: 난민신분	이름: 홍길동 국적: 대한민국 나이: 45세 특이사항: 보건복지부	이름: 자개 위고 국적: 스위스 나이: 52세 특이사항: UN대사
이름: 사카이만 국적: 방글라데시 나이: 35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압둘라에프 국적: 00000 나이: 35세 특이사항: 무허가노동자	이름: 비숍 국적: 러시아 나이: 47세 특이사항: 선원	이름: 마이크 국적: 독일 나이: 38세 특이사항: 국내 회사원
이름: 레이첼 국적: 미국 나이: 25세 특이사항: 국내 유학생	이름: 유카니 국적: 우즈벡 나이: 29세 특이사항: 외국인노동자	이름: 유키 국적: 일본 나이: 35세 특이사항: 국내 회사원	이름: 미네스카 국적: 00000 나이: 32세 특이사항: 무허가노동자

활동지 3.

역할카드(빈칸)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이름: 국적: 나이: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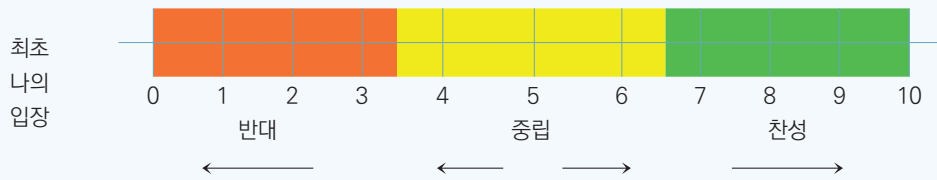
활동지 4.

의견 수직선(최초, 최종 의견)

나의 선택은?

다음 수직선에 여러분의 의견에 가까운 곳에 표시해 봅시다.

질문: 과연 마스크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활동지 5.

역할에 따른 토론 수직선

나의 선택은? (같은 입장끼리 토론 후)	
토론 (2~4명)	
〈상대입장에 대한 나의 감정은〉	
<p>화남 기쁘지않음 무관심 그저그럼 좋음 매우좋음</p>	
토론 (8명)	
〈상대입장에 대한 나의 감정은〉	
<p>화남 기쁘지않음 무관심 그저그럼 좋음 매우좋음</p>	
최종토론	
〈상대입장에 대한 나의 감정은〉	
<p>화남 기쁘지않음 무관심 그저그럼 좋음 매우좋음</p>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06

영구동토층 파괴에 따른 팬데믹 가능성 탐구 및 글로벌 연대

하승천

06

영구동토층 파괴에 따른 팬데믹 가능성 탐구 및 글로벌 연대

학습목표

- 영구동토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영구동토층 파괴에 따른 전지구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 영구동토층과 팬데믹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와 영구동토층의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키워드

- 인권, 평화, 지구 온난화, 영구동토층, 책임, 의무, 팬데믹, 환경오염

핵심역량

- 지구촌 이슈와 경향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
- 적극적인 참여 및 행동능력

교과

- 사회, 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한눈에 보기

수업의 흐름	활동명	세부 활동	활동목적	예상 소요시간
도입	우물물을 먹은 사람은 왜 아팠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확인하기 • 중독이 된 원인에 대해 추측하기 • 재난에 대한 새로운 원인 파악하기 	새로운 재난의 원인 파악	40~50분
전개	왜 일어났던 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의 재난상황 파악하기 • 재난상황과 영구동토층 연결하기 	환경적 문제로부터 현재의 문제 파악	40~50분
정리	영구동토층 파괴를 널리알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동토층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 영구동토층 파괴 피해현황 확인하기 • 지구온난화와 영구동토층과의 관계 이해하기 • 영구동토층 파괴의 현상 알리기 • 글로벌연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 설정하기 	영구동토층 파괴에 따른 결과 확인 및 피해 알리기	120분

교수학습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based learning)은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을 구조화하는 학습모형입니다.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학습모형입니다.

보편적 설계 학습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은 모든 학습자가 학습전문가 (expert learner)로 양성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를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표현하고, 학습자의 행동과 표현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제공 하는 교수 설계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습 설계 모형입니다.

우물물을 먹은 사람은 왜 아팠을까?

활동목적

새로운 재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활동방법

〈생각열기〉

당신은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의 내과의사이다. 당신의 가족은 대대로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았었다. 이 마을은 시베리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35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산불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기르고 있던 순록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수십 마리의 순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 지역에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땅 속에 있던 송유관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송유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시설이 불에 타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터져 나온 석유는 주변의 강물과 바다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한 환자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손과 발이 저려오거나 따끔따끔 아파오고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더니 급기야 숨쉬는게 어려울 정도였다. 그 환자는 그의 병적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이 지역의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약 10년 정도 살았으며, 집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있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산지 10개월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과 비슷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3년 전에 담배도 끊었고 술도 더 이상 마시지도 않는다.

또한 비타민을 제외한 어떠한 약도 섭취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이 마을 의회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증상이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된 물로부터 나타나는 만성적인 중금속 중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신은 식수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는 0~19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의회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수 검증을 위한 예산 편성 표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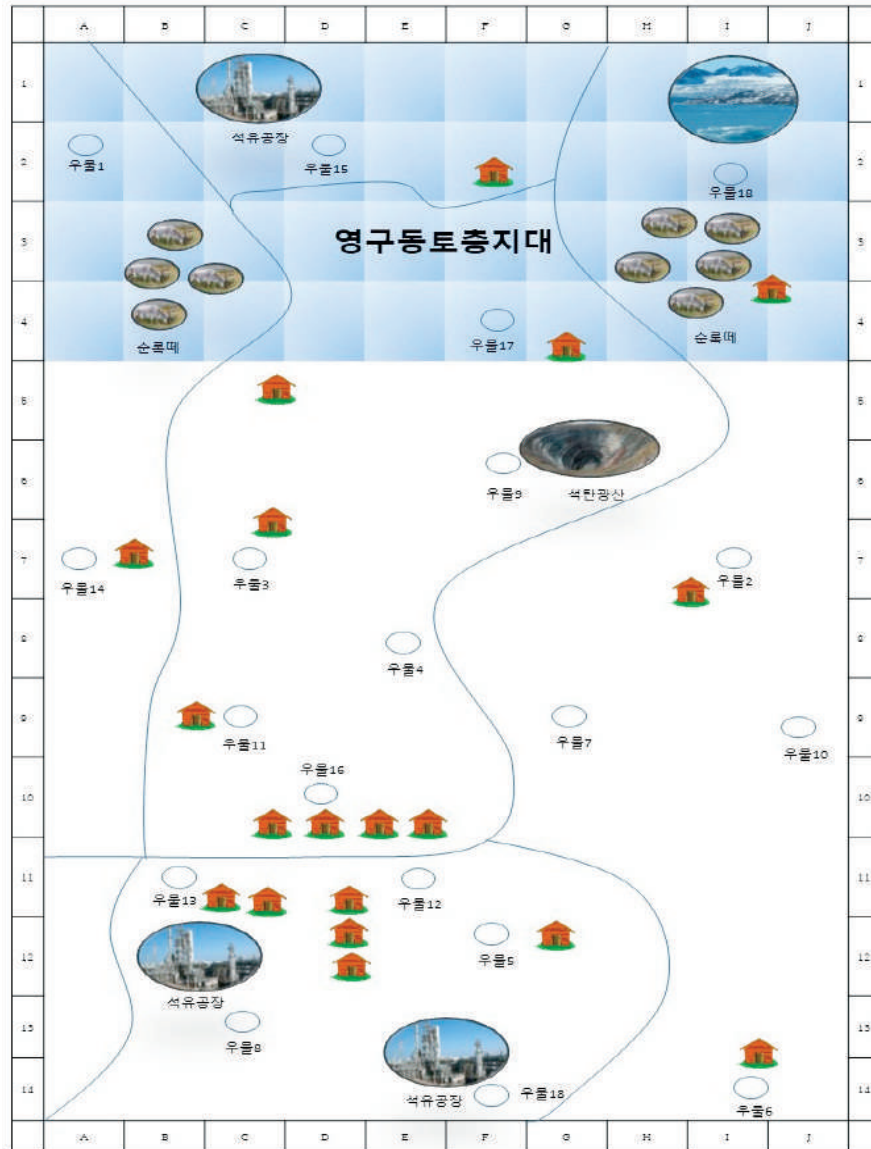
- 환자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해 봅시다.
- 환자가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탄광이 오염원이지 않을까요?
- 중금속은 어떻게 식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보제공 및 근원지 찾기〉

- (선택학습) 좌표 찾기 연습하기: 다음 좌표 찾기는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표 찾기 연습을 해 봅시다. 이 단계는 필요에 따라 건너뛰기도 가능합니다.
 - B3의 좌표는 ◆와 같습니다.
 - C2의 좌표는 ☆와 같습니다.
 - A4의 좌표는 ◎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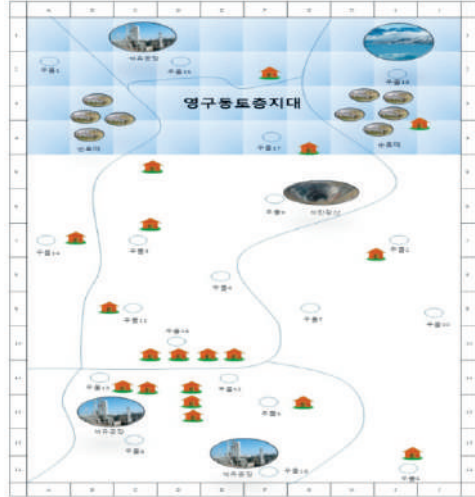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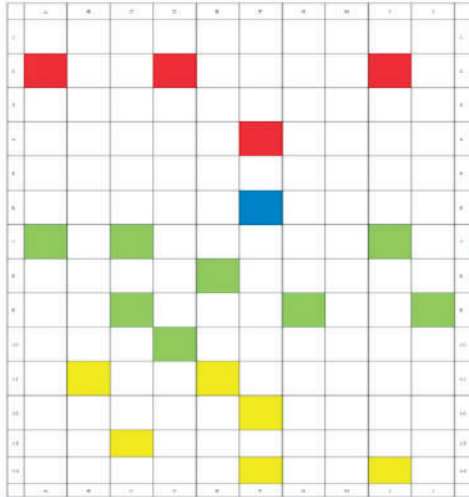
	A	B	C	D	
1					1
2			☆		2
3		◆			3
4	◎				4

- 중금속 오염 정도의 정보가 담긴 마을 지도를 나눠줍니다. 지도의 오른쪽 상단 쪽의 고도가 가장 높고 왼쪽 하단 쪽이 고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 학생들에게 물이 어떻게 흐를 지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염수치는 현존하는 우물로부터 조사된 정보라고 설명해 줍니다.
- 교사가 지도의 하단부부터 아래에 있는 우물의 수치를 불러줍니다. 학생들은 수치에 맞는 오염 정도를 좌표에 표시합니다. (또는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나눠 준 뒤 지도의 하단부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상단까지 지도에 표시하게 합니다.)

- 토의 후, 교사는 탄광에서는 중금속이 흘러나온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오히려, 다른 곳이 중금속이 흘러나온 곳임을 암시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불러줍니다.
- 학생들은 지도의 윗 부분(영구동토층 지대)이 전반적으로 물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과연 영구동토층이 무엇이길래 이 지역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은지 궁금증을 남긴 후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교사를 위한 팁

- 생각열기에서의 마을의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는 실감나게 읽어주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또는 의사와 아내의 역할을 정한 후 역할극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 좌표 찾기가 어려울 경우, 간단한 좌표부터 찾는 연습을 합니다.
- 마을지도에서 위쪽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아래쪽으로 흐른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또는 간단한 과학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용색소를 모래 속 고도가 높은 쪽에 묻은 후,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플라스틱 판을 기울이면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색소가 점차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준비



빨강색-오염원
주황색-우물



실험



실험확인

활동목적

환경적 문제로부터 현재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활동방법

- 시나리오에서의 다른 문제점의 원인을 해결합니다.
 - 이 마을의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시나리오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의 내과의사이다. 당신의 가족은 대대로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았었다. 이 마을은 시베리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35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산불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기르고 있던 순록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수십 마리의 순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 지역에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땅 속에 있던 송유관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송유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시설이 불에 타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터져 나온 석유는 주변의 강물과 바다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한 환자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손과 발이 저려오거나 따끔따끔 아파오고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더니 급기야 숨쉬는게 어려울 정도였다. 그 환자는 그의 병적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이 지역의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약 10년 정도 살았으며, 집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있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산지 10개월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과 비슷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3년 전에 담배도 끊었고 술도 더 이상 마시지도 않는다. 또한 비타민을 제외한 어떠한 약도 섭취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이 마을 의회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증상이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된 물로부터 나타나는 만성적인 중금속 중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신은 식수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는 0~19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의회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수 검증을 위한 예산 편성 표결에 들어갔다.

<관련 문제 선정하기>

1. 산불이 발생합니다.
2. 순록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3. 송유관이 터져 관련시설이 파괴되고 석유가 주변으로 흘러나옵니다.
4.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증상을 호소합니다.

-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모둠별 활동)
 - 모둠별(개인별)로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선별합니다.
 - 모둠별(개인별)로 태블릿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 학습지를 완성합니다.
 - 태블릿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리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여 모둠별로 제공합니다.
 - <문제 및 가설설정> 모둠 전체가 협의하여 진행하고, 상황에 맞게 모둠별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예시: 학습지 색깔 별(1:노랑, 2: 주황, 3: 빨강 등)로 주도적 리더를 선정한 후, 모둠 인원이 돌아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둠별 학습이 어려운 경우, 개인별 가설설정, 정보수집을 수행합니다.

—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하고 싶은 마을 문제 적기(모둠별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시설이 파괴되고 석유가 흘러나온 문제 • 가설 설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베리아 지역 땅이 녹아 석유시설이 붕괴된 것이다. 				
4	2	1	3	5
이전의 원인	원인	분석해야 할 주제	결과	추후의 결과
지구온난화	땅 꺼짐 (영구동토층 해빙)	석유시설붕괴	석유시설파괴 석유로 인한 환경 오염	석유가격상승 바다생태계오염 다른 국가 피해
◆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관련그림〉		〈신문기사〉		〈관련정보〉
6. 결론: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동토층이 해빙되어 석유시설이 붕괴되었다.				

- 해결하고 싶은 마을 문제 적기(모듬별 1개)
 - 순록들이 죽어가는 문제
- 가설 설정하기
 - 석유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순록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4	2	1	3	5
이전의 원인	원인	분석해야 할 주제	결과	추후의 결과
지구온난화	탄저균 (영구동토층 해빙)	순록죽음	순록떼죽음 소녀의 죽음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창궐 전세계 감염우려

◆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관련그림〉	〈신문기사〉	〈관련정보〉
--------	--------	--------

6. 결론: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동토층이 해빙되어 고대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났다.

- 해결하고 싶은 마을 문제 적기(모듬별 1개)
 - 시베리아 산불 발생
- 가설 설정하기
 - 누군가가 시베리아 산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4	2	1	3	5
이전의 원인	원인	분석해야 할 주제	결과	추후의 결과
지구온난화	여름철 고온기온	산불발생	영구동토층의 메탄 배출	지구온난화가속

◆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관련그림〉	〈신문기사〉	〈관련정보〉
--------	--------	--------

6. 결론: 시베리아 지역 고온현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 해결하고 싶은 마을 문제 적기(모둠별 1개)

- 알 수 없는 증상 호소

- 가설 설정하기

- 빙하 속에 병균이 우물에 흘러들어와 그 물을 마셔서 아팠을 것이다.

4	2	1	3	5
이전의 원인	원인	분석해야 할 주제	결과	추후의 결과
지구온난화	중금속 유출(영구동토층 해빙)	의문의증상	중금속 중독 위험	바다로 흘러들어 가 전 세계로 중금속 유출

◆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관련그림〉	〈신문기사〉	〈관련정보〉
--------	--------	--------

6. 결론: 영구동토층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흘러들어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 조사한 자료 공유하기(직소모형, 전문가학습: 전문가 1명 남고 움직이기)(선택학습)

- 이 과정은 학급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각 학생에게 공백의 학습지를 3장씩 제공합니다.

- ◎ 는 각 모둠의 전문가로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모둠원에게 자신이 모둠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 다른 모둠원은 각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여분의 개인별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 원 모둠에 돌아오면 원 모둠의 전문가에게 학습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 조사한 결과 정리하기

- 칠판에 각 모둠의 문제점에 따른 <2: 원인>, <4: 이전의 원인>을 정리합니다.

4	2
이전의 원인	원인
지구온난화 인간의 욕심	땅꺼짐 영구동토층 파괴

- <2:원인>, <4: 이전의 원인>은 영구동토층과 지구온난화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 칠판에 <5: 추후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 <5: 추후의 결과는> 미래의 팬데믹을 의미합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마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마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파괴되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팬데믹이 생길 수 있음을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5	
추후의 결과	
석유가격상승 바다생태계파괴 다른 국가피해 고대 바이러스 부활 전세계 새로운 감염병 지구온난화 가속 중금속 중독	→ 새로운 팬데믹 출현

교사를 위한 팁

-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기 위해 태블릿이 없다면, 미리 교사가 관련된 신문기사 및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모둠 활동이 어렵다면 개인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원인과 결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완성된 원인과 결과 학습지를 수업 후, 교실 한 곳에 전시하면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영구동토층의 파괴는 단순히 한 지역과 국가의 피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합니다. 영구동토층의 파괴는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하며,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및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영구동토층의 파괴를 팬데믹의 출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영구동토층 파괴를 널리 알리기

활동목적

영구동토층의 파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고 피해를 알릴 수 있습니다.

활동방법

• 영구동토층과 그 결과 살펴보기

- 영상을 통해 영구동토층과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한글버전(영구동토층)

[출처] tvN 인사이드, "판도라의 질병상자?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녹고있다 | 미래수업 Living the New Normal EP.4", <https://www.youtube.com/watch?v=6OaCmv7fdaM>



영어버전(영구동토층)

[출처] Alfred-Wegener-Institut, Helmholtz-Zentrum für Polar- und Meeresforschung, "Permafrost - what is it?", <https://www.youtube.com/watch?v=lxixy1u8GjY>



영구동토층 메탄가스 분출

[출처]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UAF - 2010 - Hunting for methane with Katey Walter Anthony", <https://www.youtube.com/watch?v=YegdEOSQotE>

- 영구동토층이란 무엇인가요?

- 영구동토층이 파괴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영구동토층으로 인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지구온난화와 그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 알기



지구온난화의 영향

[출처] JTBC News, "심상치 않은 북극 빙하...8년 밖에 남지 않은 시간", <https://www.youtube.com/watch?v=WmZUjBhd-fA>



지구온난화의 원인

[출처] JTBC Culture, "(지구온난화) 6도 오르면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차이나는 클래스 32회", <https://www.youtube.com/watch?v=3wf6TEhI72E>



지구온난화에 대항하는 우리

[출처] KBS 다큐, "지구온난화 문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 [다큐 인사이드] 20200130", <https://www.youtube.com/watch?v=bCYwly1K3UM>

-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요?

-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대항하는 움직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시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팬데믹 알리기

-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1,2,3,4,5번) 영구동토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팬데믹을 알릴 방법을 모색한다.

-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포스터, 유튜브, 신문기사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전시 및 발표를 진행한다.

● <예시>



<<http://newspaperclub.com>> 제작

가. 회원가입하기 - Sign Up

나. 뉴스페이퍼 로그인하여 시작하기 - Create

다. 제작모드 선택하기 - Arthr 선택하기

라. 기본 신문 프레임 선택하기 - Start with a Demo Design

마. 신문만들기 1 - 제목 설정하기

바. 신문만들기 2 - 신문종류(테마) 설정하기

사. 신문만들기 3 - 틀 편집(Layout)

아. 신문만들기 4 - 이미지 적용(Images)

자. 신문만들기 5 - 기사문 작성(Articles)

차. 신문만들기 6 - 신문 저장 후 PDF로 저장하기

교사를 위한 팁

-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개인별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학급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합니다.
-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과 활동 전과 후로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향후 또 다른 행동 계획 등이 있는지를 공유합니다.

더 알아보기

영구동토층 국제기구 자료

- UN, “Emerging Issues of Environment Concern”, Frontiers 2018/19,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27542/Frontiers1819_ch3.pdf
- UNEP, “Policy Implications of Warming”, <https://epic.awi.de/id/eprint/33086/1/permafrost.pdf>

영구동토층 관련 기사 및 자료

- 리서치페이퍼,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막대한 양의 수은 방출될수도”,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90>
- 동아사이언스, “코로나에 몰두하는 사이 심상찮은 지구 기후...‘북극권 빙하영구동토층 위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141>
- 경향신문, “동토층에 ‘플라스틱 분해’세균...‘사라진 질병’도 따라 나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82115005&code=610103
- KBS 뉴스, “‘녹고 있는 영구동토층’...러시아 인프라 위협”,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5167&ref=A>
- KBS 뉴스, “불타오르는 시베리아,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542&ref=A>
- 연합뉴스, “사람 탓 아니라면 ‘시베리아 폭염’ 있을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87300009?input=1195m>
- YTN사이언스, “빙하 녹으면 묻혀있던 바이러스 부활...인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hcd=0024&key=202005121730471991
- OBS, “러시아 ‘검은 눈’ 펄펄...주민들 공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564>

수업 참고자료

- Grave mistake lesson plan, <https://sitesmedia.s3.amazonaws.com/creekconnections/files/2014/03/CemeteryConsequences.pdf>
- 이상우,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달인 되기 (시그마프레스, 2014)

활동지 1.

시나리오

당신은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의 내과의사이다. 당신의 가족은 대대로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이 마을은 시베리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35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는데 하면, 알 수 없는 산불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기르고 있던 순록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수십 마리의 순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 지역에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땅 속에 있던 송유관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면, 송유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시설이 불에 타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터져 나온 석유는 주변의 강물과 바다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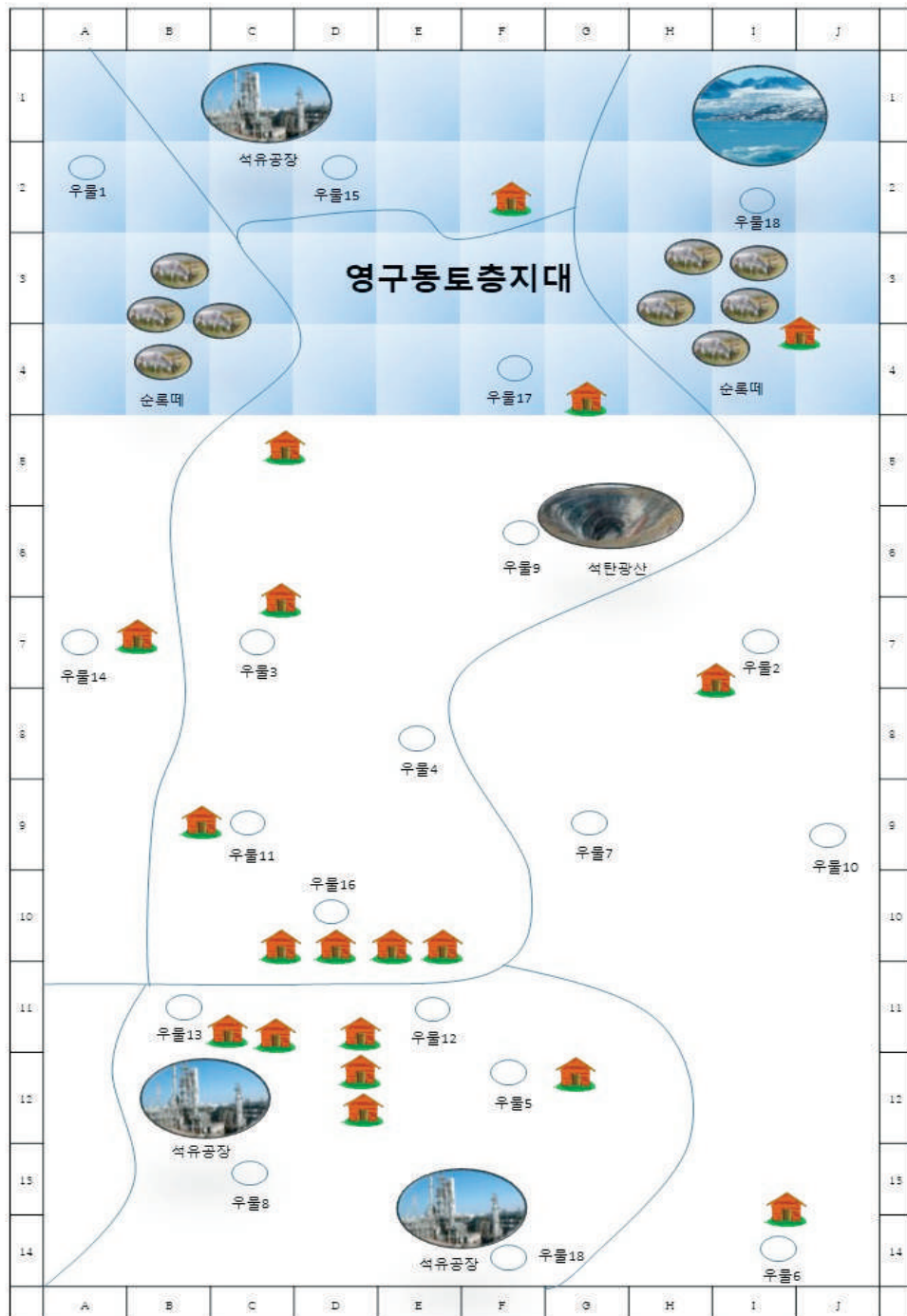
가장 우려되는 일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한 환자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손과 발이 저려오거나 따끔따끔 아파오고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더니 급기야 숨쉬는게 어려울 정도였다.

그 환자는 그의 병적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이 지역의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약 10년 정도 살았으며, 집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있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산지 10개월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과 비슷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3년 전에 담배도 끊었고 술도 더 이상 마시지도 않는다. 또한 비타민을 제외한 어떠한 약도 섭취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이 마을 의회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증상이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된 물로부터 나타나는 만성적인 중금속 중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신은 식수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는 0~19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의회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수 검증을 위한 예산 편성 표결에 들어갔다.

활동지 2.

마을지도



활동지 3.

마을지도 색칠하기

	A	B	C	D	E	F	G	H	I	J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A	B	C	D	E	F	G	H	I	J	

비슷한 값의 오염수치 표시하기

- ♣ 0~19: 노란색
- ♣ 20~39: 연두색
- ♣ 40~59: 파란색
- ♣ 60~80: 빨강색

활동지 4.

데이터 정보

중금속 오염 데이터 수치(우물)	
우물 1	61
우물 2	39
우물 3	24
우물 4	38
우물 5	11
우물 6	7
우물 7	23
우물 8	19
우물 9	57
우물 10	27
우물 11	25
우물 12	13
우물 13	7
우물 14	21
우물 15	79
우물 16	20
우물 17	76
우물 18	80

활동지 5.

학습지

- 해결하고 싶은 마을 문제 적기(모둠별 1개)
- 가설 설정하기

4	2	1	3	5
이전의 원인	원인	분석해야 할 주제	결과	추후의 결과

◆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관련그림〉	〈신문기사〉	〈관련정보〉

6. 결론: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 (초등)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ISBN 979-11-87819-22-6

ISBN 979-11-87819-21-9 (세트)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실

연구·집필 김화선 (전남 한아름초등학교 교사)
박재준 (서울 공연초등학교 교사)
하승천 (인천 노현초등학교 교사)

감수 김경숙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이경원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제작대행 디자인프리즘
전화) 02-2264-1728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전송) 02-774-3957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Photo cover credit: ©Tagxedo

해당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해당 국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에 포함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본문에 수록된 사진 등은 모두 출처를 확인해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출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저작권 관련 정보를 주시면 확인 후 표기하겠습니다.